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 중에 전쟁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과 혼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악조건 속에서 피어날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깨어 났었다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3월26일 (토) 제 1867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교회, 구원의 희망...음식 쉼터 교통 제공

TLI 엘리엇 클라크 목사, 우크라이나 난민에 기착지 돼주는 교회들 소개

루마니아 국경도시 시게투마르마치에이(Sighetu Marmatiei) 외곽, 흑 티사(Black Tisza) 강이 가로지르는 우크라이나 쪽에 캐러밴 한 대가 어둠속에 정차해 있다. 이 차량 전조등에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떠나온 가족이다. 이들의 탈출 여정은 느리고 매우 조심스럽다. 자동차들이 1km나 길게 늘어서 있다. 일부는 추운 날씨 속에서 이미 하룻밤을 여기서 보냈다. 이들은 안전한 시게트(시게투마르마치에이)를 줄여서 이렇게 부른다)로 건너가기만 바랄 뿐이다.

이 국경을 건너기만 하면, 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루마니아 북부 지역의 침례교회들과 오순절교회들이 난민들을 맞이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런 일은 우크라이나의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의 검문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국제선교사훈련원(TLI)을 섬기고 있는 엘리엇 클라크(Elliott Clark)은 소개한다(Churches as Waystations on the Refugee Road from Ukraine).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최소 2백만의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국적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떠났다. 그 중 절반 이상은 폴란드로 피했지만 수십만 명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로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오데사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를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몰려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데사에 있는 친구 선교사를 데피시키려고 오데사로 떠났다. 그러나 국경지역 팔랑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 난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곧 깨달았다. 수천 명이 대피하고 있었다. 몰도바 정부가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너우에 데리고 가서 교회 건물 안에서 쉼터를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우리 교회가 무슬림으로 절반이 채워질 것이라고는 내 인생에서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치사리 목사는 말한다.

품을 제공한다. 건물에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정집을 오픈했다(서른 시간을 차 안에서만 보냈다면 분명히 당장 샤워부터 하고 싶을 것이라고 치사리 목사는 귀띔한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동유럽 전역의 교회들이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친 난민 행렬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탈바꿈한 이 교회들은 음식과 쉼터와 교통을 제공하고 구원의 희망이 되고 있다.

치사리 목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밴 하나를 렌트했다. 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두 시간을 운전해서 팔랑카로 다시 돌아갔다. 이 국경지역에 처음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사람들과 오데사에 있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었다고 치사리 목사는 말한다.

초기부터 그의 교회가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섬긴 것은 아니었다. 처음 이마고데이교회는 나이지리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네팔, 인도 유학생들에게 지낼 곳을 제공했다. 그들은 하룻밤이나 이틀 밤을 묵고 다음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해갔다.

난민들 대부분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언어장벽이 있긴 하지만, 이마고데이교회는 그들의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 교인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 가운데 있는 난민가족들을 방문할 때 자녀들을 데려간다.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노는 동안 어머니들은 모여서 기도한다.

“지친 당신,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CT, 3월 중 진행될 사상 최대 규모 기독교광고 캠페인 소개

아직도 이 광고("He Gets Us")를 보지 않았다면 보게 될 것이다! 이번 달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독교 광고 캠페인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 및 광고판과 함께 TV광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중하게 제작되고 철저하게 조사되고 시장 테스트를 거친 메시지로 밀레니얼과 Z세대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100M Ad Campaign Aims to Make Jesus the 'Biggest Brand in Your City').

동영상 광고 중 일부는 이미 유튜브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상적인 흑백 사진과 감동적인 피아노 트랙이 특징이다.

공익 광고는 시청자를 HeGetsUs.com(#HeGetsUs: https://hegetsus.com/)으로 안내한다. 여기에서 라이브 채팅, "기도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위한 문자 메시지, 알파(Alpha)와 함께 소그룹에 가입하기, 또는 유튜브 성경 읽기에 클릭해 참여하는 4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미시간에 기반을 둔 마케팅 대행사(Haven)가 감독 하에 제작된 각 광고는 "오늘날의 삶에서의 고투는 진짜입니다"라며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상 경험의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He Get Us"는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목적을 위해 세속적인 미디어 전략을 채택한 처음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듀엥 목사



푸른초장
정준성 목사



미국기독교의사회의역사
이길호 목사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bookcenter.com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이정현 목사의
3분의 미라클
MINUTE MIRACLE
3분의 미라클

3분의 미라클

하나의 QT 인 동시에 짧은 설교입니다.
평이한 것 같지만 깊은 묵상을 거친 것이기에
말씀에 나뭇잎이 있고 통찰력을 주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평신도 뿐 아니라 설교자들에게도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예화와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 **이정현** 교수
현 미주 크리스천 신문 상담 칼럼 담당
현 개혁장교회 대학 및 신학 대학원 총장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성경적인 그의 메시지는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원함을 주는 생수 같아요. - 레저월드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신도들에게 유익하고 목사님들도 예화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미주크리스천 신문 편집장 유원정

탁구회원들의 단체 카톡방에 올린 3분의 미라클은 무더운 여름철의 냉수처럼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 탁구동 회장 고신 최동석 목사

3분의 미라클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아멘이 절로 나오고 제가 믿는 믿음과도 너무 일치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수 있는 해답을 주고 있어요. - 찬양 반주자 최영애 권사

구입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 온라인 : WWW.HISFINGERMALL.COM / 주문처 : 이희은 1360 SHADOWBROOK TERRACE, HARBOR CITY CA 90710 / E-mail : TLspc0316@gmail.com/ Tel: (310) 749-4756

Hisfinger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시 8:3) ... 예수께서 물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 8:6)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가격 : 30불 (책값 및 발송비 포함) / 선물용 4권을 사시면 100불(발송료 무료)
출판상담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발행인 칼럼

내 맘대로 산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내 맘대로 산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슬로건이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맘대로 산다. 몸에 문신을 끄적거리면서 부모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 몸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기 몸이라면서 아무것이나 몸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리 왕굴 저리 왕굴 아무렇게나 살기도 한다. 자기 몸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산다. 세상을 사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자기 기분이다. 아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6:19-20).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을 그 뜻대로 쓰실 수 있는 주인이 엄연히 계시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때릴 수도 있고 훔칠 수도 있다. 부술 수도 있고 손으로 욕할 수도 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도박하는 것 자체가 나쁘게 도박하면서 손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 심지어는 피를 흘리게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끄적거리고 있다. 하지만 같은 손으로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고칠 수도 있고, 창의적으로 새 것을 만들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도 있고, 아파하는 자의 상처를 아루만질 수 있고 힘든 자를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손이라고 내 맘대로 함부로 손을 쓰면 안 된다. 파괴하는 손이 아니라 건설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 화(禍)가 되는 손이 아니라 복(福)이 되는 손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신28:8). 내 손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손에 복을 가득히 담아두실 내 손의 주인이 엄연히 계시다.

내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1813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843년 주님에게로 간 29세의 청년 로버트 맥체인은 아무대로나 걸어 다니지 않았다. 울곧게 걸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글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이 음미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에는 모름지기 함부로 걸지 마라. 오늘 아침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라” 맥체인, 그가 앞서 걸어간 길은 훗날 많은 사람의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많이 그리워하리라고 생전에 생각했을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5). 내 발은 내 것이 아니다. 복음을 들고 땅 끝으로 가라시는 내 발의 주인이 계시다.

팬데믹 가운데 왜 쇼핑물은 짝짝 차고, 반면에 왜 교회는 텅텅 비는가? 교회에서 내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어서 쇼핑물에서 나를 치장하고 채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현대인의 실상이 아닐까. 내 맘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몸의 훈련이 필요하다. 예배는 내 영을 위한 가장 고결한 자리이지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훈련하는 가장 탁월한 자리이기도 하다.

“믿음을 행동으로 말하라” ... 언행일치 중요

TGC, 미 캠퍼스사역자들이 말하는 Z세대 특성과 전도 방법론 소개 (상)

Z세대의 선두 주자는 올해로 25세가 된다. 이 나이는 이 세대의 선두 집단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제 술을 마시고, 투표하고, 차를 렌트하고, 또 교회에 등록할 수 있을 만큼 나이를 먹었다.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적다. 그들은 또한 대학에 갈 가능성이 더 높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틱톡 계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다. 며칠만 오프라인에서 보내도 그들은 더 이상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킁킁거리는 농담을 따라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Z세대는 이전 세대와 같은 응집력이 없다. 25세의 문화지표(cultural references)와 성장경험은 나이가 별 차이 나지 않는 19세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 마찬가지로 19세는 14세와 많이 다르다.

“Z세대는 기술의 부상과 그로 인한 새로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RUF(Reformed University Fellowship) 사역자 체이스 더즈(Chase Daws)는 말한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훨씬 빨리 온라인 정보로부터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무지 접근할 수 없고 또 따라갈 수 없는 세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상처투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 그들은 삶의 의미나 정의 추구 같은 어려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체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있다.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은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입니다.” 더즈는 말한다. Z세대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이 새로운 세대의 신자들을 환영하고 포용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TGC는 전국의 캠퍼스 사역자들에게 교회지도자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동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6 Things Christians Should Know About Gen Z).

1. Z세대는 (일종의) 무신론자다

Z세대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덜 종교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 캠퍼스 아웃리치 지역 책임자 토니 덴트먼(Tony Dentman)이 말한다. “예전에 제가 대학 1학년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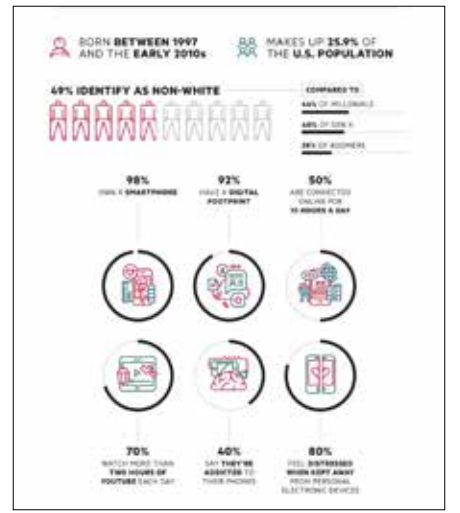
대할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전 세대보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 있다고 믿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들 중 삶에서 참된 크리스천을 만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많은 경우에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공화당이나 보수주의자, 심지어 남부지

의 역사하심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덴트먼은 말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누군가를 찾고 있다.

2. Z세대는 (더 나은) 공동체를 찾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Z세대는 기록상 가



급변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문화지표 성장경험도 급변하는 Z세대 공동체 찾는 Z세대에게도 ‘말씀과 성례전 사역이 효과적’은 불변

부모님, 혹은 부모님 세대 중 누군가가 자신을 교회에 데려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 3년 동안 시카고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신앙의 연결고리가 돼준 세대는 부모세대가 아닌 조부모세대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내 경험에 따르면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고 내가 그들에게 무신론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면 그들은 자신이 불가지론자임을 알게 되지요. 그들은 사실 신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또 굳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덴트먼의 말이다.

따라서 Z세대의 성경읽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

역과 관련한 것, 또는 마스크 착용 반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라벨이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Z세대는 불의, 정체성, 삶의 의미 같은 깊이 있는 문제에 관계 깊어지고 싶어 한다.

더즈는 말한다. “어디를 가든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왜 죄책감을 느끼는지, 건강한 성공은 어떤 모습인지, 실패를 건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항상 하던 대화를 그들과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뿐 아니라 육체, 소명, 창조에 대한 청지기 직분 같은 문제가 가진 심각성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연결지점은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가리킨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장 외로운 세대였다.

버클리 RUF 캠퍼스 사역자 모건 켄드릭(Morgan Kendrick)은 이렇게 말한다. “많은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든 대중문화를 통해서든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묘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 또는 해변에서 춤추는 커플의 이미지를 온라인에 올린다.

켄드릭은 이렇게 말을 잇는다. “갓글을 보면 ‘나, 이거 원해’ 또는 ‘#목표’ 같은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처럼 관계에 대한 깊은 열망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데 대해서는, 즉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는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캠퍼스가 바로 이런 단절의 틈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의 아웃리치에서는 기독교 색깔을 걸고 드려내지 않는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덴트먼의 말이다. “제 경우,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이진 뭐, ‘돈을 쓰고 사람을 모으는 데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말이죠.”

그러나 아웃리치 사역자들은 팀 켈러가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The Reason for God)의 전편(prequel)을 쓰게 만든 동일한 경험을 보고 있었다. 덴트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전도는 당신도 신이 있음을 가정한다는 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 단계가 필요해졌습니다.”(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교회, 지친 난민들 위한...

(1면에서 계속)

이 교회 교인들은 또한 난민들이 다음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협력해 피난길에 오른 이방인들을 가까운 도시나 나라의 크리스천들과 연결해주고 있다. 힘을 합친 지역교회들이 피난경로를 짜고 물적 지원과 서류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탈출한 노예들에게 피신 경로와 안전 가옥을 제공했던 19세기 미국의 노예해방 운동 네트워크와 거의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음 장소로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 머무는 쪽을 택하는 난민들도 있다. 지난 두 번의 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이 마고데이교회의 난민을 위한 섬김은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됐다. 이제는 예배를 위한 번역도 제공하고 있다. 여러 언어로 된 전도지도 만들었다. 이 전도지는 전쟁의 해악을 친구에게 신중하게 알리는 편지형식으로 돼 있다.

치사리 목사는 말한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힘듭니다. 그들은 러시아는 약당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이런 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루마니아 시계투마르마치에이

전쟁이 발발한 일요일 아침 가브리엘 미크네아(Gabriel Michnea) 목사는 밤에 2시간밖에 못 잔 채로

그의 작은 루마니아 교회 성도들 앞에 섰다. 그는 국경을 넘어 홍수같이 밀려들어 오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했다.

가브리엘 목사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입니다.”

그 날 오후에 시게트의 이베다니침례교회는 행동에 나섰다. 남성 팀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담요, 수건을 모았다. 이 교회는 지하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당도 난민쉼터로 바꿨다.

베다니침례교회가 수용한 난민 120명 중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목사의 아내인 보스야 포티아크(Vosya Potiak)였다. 보스야는 임신 6개월이었다. 그녀가 살고 있던 도시 크리초보(Krychovo)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녀는 우크라이나에 남아 사람들을 섬기기로 한 남편을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여기 베다니교회에서 보스

야는 동료 난민들을 위한 번역과 봉사를 쉬지 않고 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의 다른 많은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시게트의 교회들은 난민들을 받아주고 먹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난민들에게 주유비를 제공해 인근 도시에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다페스트나 프라하 같은 더 먼 도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 미크네아 목사는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차량을 몰고 우크라이나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루마니아 북부의 교회들은 협력해 기름, 밀가루, 물 같은

기부품목을 트럭에 실어 국경을 넘어 운송하고 있다. 이들은 이 물품들을 받을 우크라이나 목회자 네트워크를 (비밀 장소에서) 확인한 다음, 우크라이나 자카르파타 지역 도시들로 가서 물품을 나눠주는 일을, 곧 인도주의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미크네아 목사는 그의 성도들이 이 위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정으로 살아 있는 돌들이니

다.” 그들은 기꺼이 돕고자 한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인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미크네아 목사는 지난 2주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 왔다. “지금은 우리가 그간에 설교해온 것을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우리가 부름 받은 대로 선을 행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빛

무료 급식소이건 따뜻한 잠자리이건 임시 진료소이건 기도의 집이건 아니면 인생여정에서 잠시 쉬어가는 곳이건 교회는 지친 난민들을 위한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그것은 교회 건물들이 최고의 숙소나 가장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 있는 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새 창조의 아름다움은 그가 구원하신 사람들과 그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교회가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사명을 완수함에 따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을 행하고 계신다.

루마니아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하이 치사리 목사는 오늘의 어둠 가운데서도 이미 희망의 여명을 보고 있다. “저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친 당신, 예수님이...”

(1면에서 계속)

TV전도에서 하나님의 광고판, 바이럴 비디오에 이르

전문가들에 의해 브랜드화되고 큰 예산으로 강화됐다.

광고를 본 사람이 궁극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마케팅 용어가 있다. 바로 ‘전환’

He Get Us의 제작자는 이번 캠페인의 장점은 미 전역 및 교단에 있는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캠페인은 교회를 돕기

HeGetsUs.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클릭하는 방문자를 받게 된다.

동 캠페인에 소요되는 1억 달러는 비영리단체(The

“He Gets Us” HeGetsUs.com(#HeGetsUs: https://hegetsus.com/)

4가지 중 택일: ①라이브 채팅 ②문자 메시지 ③소그룹 가입 ④유튜브 성경읽기 제품구입 ‘전환’→“삶을 바로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의 의미

기까지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새로운 기회를 본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다. 기독교인들은 그 단계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있다: 삶을 바로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전 문화사인 Gloop을 고용해서 교회를 모집해 기도를 위한 전화와 문자에 응답하거나

Servant Christian Foundation)가 제공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에 은혜를 내리소서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온 세계 사람이 분노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도시가 항복을 거부하자 맹폭을 가하는 러시아의 무참한 모습에 어린이, 어른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여러 도시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 눈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다른 형제, 자매를 무참하게 죽이고 그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의 부작용이라고 정리한다 해도 당장 집과 가족을 잃고 죽음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더 실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가 유린당하는 우크라이나의 현실과 눈물은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일제치하에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겪어본 나라, 6.25전쟁으로 온 나라가 풍전등화를 경험하고 잿더미 위에서 눈물을 흘려본 민족이기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기관과 교회가 앞 다투어 헌금하고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자랑스러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누구에게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복음사가 가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를 노래하지만 우리 삶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을 때, 불합리한 세상에 아파할 때 신자로서 마음껏 불평하지도 못하고 흐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필립 안시는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보면서 Disappointed with God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과연 존재하시는가?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누구도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는 떨어지는 것이 참새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10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 20살을 앞에 둔 청소년, 그리고 이제 한참 자라나는 아이를 두고 가족을 책임져야 할 40대 가정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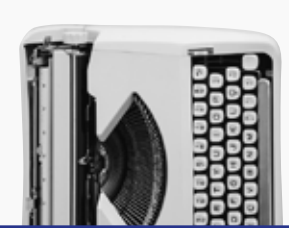
신앙인에게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해답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기 까지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고난이 교회를 무너뜨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로마의 날카로운 칼날을 뚫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 오늘날까지 세워져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백년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변두리 인생처럼 보였고 고난의 삶을 경험해야지 했습니다. 그 모든 광야를 건너면서 하늘의 만나를 맛보면서 사막에 길을 내면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는 조국 땅뿐 아니라 이민 사회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고통스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펼쳐지게 하소서.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세상이 다 불합리하게 보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무너진 인간 세상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세상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전쟁의 포화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백성 위에 소망의 빛을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주소서. preachchrist@kcpcc.or

미주크리스찬 문인협회

1983, KCLA, Korean Christian Literature Association in U.S.A



2022년 제36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

미주지역 한인 사회에 문학 활성화와 보다 넓은 문학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각자의 정서적 함양을 위하여 제정된 크리스찬 신인작품상의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모집부문

- 1. 시 : 5편 이상 (A4용지 출력)
2.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이상
3. 소설: 단편소설 - 200제 원고지 50매 내외
4. 장편소설: 1편/동화: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30매
5. 동시: 5편 이상/동요: 5편 이상
6. 생활수기: 1편 200자 원고지 50매
* 코로나19 작품도 보내주세요
* 6장르 모두(A4용지 출력)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작품소재, 응모마감, 작품제출처, 연락처, 심사위원, 발표표, 특기, 주최) and Content (작품소재는 자유이며 반드시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무방함,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1655 W. Marine Ave., Gardena CA 90247, Tel: (213)249-0771, 문단의 중진들에게 위촉하고 당선자와 함께 발표함, 2022년 6월30일, 미주판 신문에 공고하고 입상자에게는 시상 일시와 장소를 개별 통지함, 전 입상자는 본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에서는 입상자들이 문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작품에는 반드시 이름(본명-한글,영문),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며, 결봉투에 '미주크리스찬문학협회'기재할것마감일 소인유효함,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되, 응모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만족한 삶을 사는 길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J. Oswald Sanders는 그의 책 Facing Loneliness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회성 즐거움이나 부를 축적하

는 것은 지속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합니다. 백만장자는 대개 외로운 사람이고 코미디언은 종종 청중보다 더 불행합니다.” “샌더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종 만족을 낳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이 단지 부를 쌓는 것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면 결코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peter Lives 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으로 사람(person)을 살 수는 있으나/그 사람의 마음(spirit)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house)을 살 수는 있어도/행복한 가정(home)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bed)는 살 수 있어도/최상의 달콤한 잠(sleep)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clock)는 살 수 있어도/흐르는 시간(time)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

든지 책(book)은 살 수 있어도/결코 삶의 지혜(wisdom)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position)는 살 수 있어도/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respect)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medicine)은 살 수 있어도/평생 건강(health)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blood)는 살 수 있어도/영원한 생명(life)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몸(body)은 살 수 있어도/진정한 사랑(love)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pleasure)은 살 수 있으나/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delight)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food)은 살 수 있지만/마음이 동하는 식욕(appetite)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

(clothes)은 살 수 있으나/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auty)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사치(luxury)를 누리면 살 수는 있으나/전통어린 문화(culture)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고급품(articles goods)을 살 수는 있으나/아늑한 평안(peace)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아름다운(auty) 것을 살 수는 있으나/정신적인 평화로움(stability)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funeral)을 치를 수 있지만/행복한 죽음(glorious death)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religion)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salvation)은 얻을 수 없다.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

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 것이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 없다.”

이 글을 보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진리의 말씀에 두고 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정준성 목사

(뉴욕 주사랑장로교회)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특권을 쓰고 의무를 다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경작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창2:15). 경작하라는 명령은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는 ‘일하다’와 ‘섬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으나 그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직을 빼앗기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그 후에 제사장을 한 사람씩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출28:1).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제사장의 속죄제를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죽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송아지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죽을 때 쏟는 피를 받아서 성소의 휘장에 일곱 번 뿌리고, 향단 뿔들에 바른 후,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덮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그는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남은 고기와 가죽과 내장은 진영 바깥에서 불사롭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사장들이 그 특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

비후는 하나님이 금하신 불로 향을 피웠습니다(레10:1).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로챘고,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삼상2:22).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상황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원래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로마관리에게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안나스가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10년이나 대제사장을 하고 사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야바입니다.

다. 가야바는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마피아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빙자하여 백성의 돈을 강탈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대제사장에게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백성들이 진짜 대제사장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러나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입니다(히4:14).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제물이 따로 있었지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히10:14).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보배로운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보태드릴 것이 전혀 없습

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일 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자기의 죄를 속한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마27:51).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실 때 성소 휘장도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특권입니다.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안과 의사의 검진을 받으려면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식사를 한 번하며 투자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경매가 있었는데, 4,567,888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약속시간을 먼저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3개월 기

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과 입으로 늘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며 짜증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특권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깨닫는 즉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의 두 가지 특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죄를 자백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두 가지 의무를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무, 헌신

첫째, 제사장은 헌신의 의

사도바울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인생을 살다가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행26:24).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으니,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제사장의 의무, 화목

둘째, 제사장은 화목케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피스메이커(Peace Maker)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고후5:18). 무엇보다 우리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5:9). 우리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식구들과 함께 살고,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살고,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peace maker로 살아야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가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싸움이 그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사랑이 넘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으니 언제 어디서나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쓰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쓰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는 특권을 쓰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와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화목케 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john.jungjung@gmail.com

예수님은 누구신가? 히브리서 4장 14-16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엡2:8-9).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에 앉히셨습니다(엡2:5-6).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작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제사장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특권

제사장의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

다. 다릴 필요도 없고, 45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특권

제사장의 두 번째 특권은 죄를 자백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자꾸만 죄를 지어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엡2:5-6).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b). 이 말씀에서 ‘몸’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스마타’는 영혼과 육체를 합친 것, 즉 우리의 전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면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눅9:23).

로마시대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는 사형수입니다. 자기가 달려죽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본회피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 하신다.’

“믿음을 행동으로 말하라”

(2면에서 계속)

이를 위해 캠퍼스 아웃리치는 공동체를 제공했다. 텐트만을 맡을 이었다. “우리는 신입생들이 교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과거

에 했던 그 어떤 사역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기독교에 관한 대화의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아웃리치 담당자나 자원 봉사자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또는 커피 초대받을 수 있다.

말리사 엘리스(Malisa Ellis)는 보스턴에서 크루(Cru)와 합

계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식사를 선수들이 먹는 장소로 가져왔습니다. 거기 영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을 데려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곳은 우리가 사람들을 여행 중에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

다. 요즘 그녀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기꺼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 학생들도 온다. 버밍엄에 있는 독립교단 리더머커뮤니티교회의 대학부 목사인 크레이그 밀라드(Craig

Millard)는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학생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학생들을 모으는 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이는 숫자가 3배 늘었어요.”

Z세대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 센터에 헌신적인 젊은이들로 구성된 핵심 그룹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캔들릭은 말한다. 교회개혁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참여자는 사역에 핵심을 제공해 사역의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한다.

(다음호에 계속)

지키는 인생, 크레딧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의 눈길...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지나침을 지나 경이로...

회당 시설이라는 곳이 저들의 삶...

일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면...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

기준이 분명한 인생

기준이 분명한 인생이 아름답다. 특별히 인생이...

집을 떠난 딸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였을 때...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

삶의 기준의 새로운 회복

둘째 아들이 만난 큰 흥년은 그로 하여금 삶의 기준을 새롭게...

배가 될 수 없다.

은혜를 받고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도모해야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심판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유행화

최근에는 어떤 유행가 가수가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의 간증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앞으로 목회자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카운티에서 청년 KIM

A: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은 팬데믹 이후로 교회의 수가...

한 흥 목사가 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책을 보면...

말씀과 기도 기본기 준비하고 내면치유 철저히

목회자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보통 설교자들은...

두 번째의 기본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8)

-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본질과 기준

저들은 이날 그곳에 가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목숨을 걸고...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은 그저 전통에 불과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기준도 신념도 없는 자의 삶을 조금만 상상해보아도...

뒤죽박죽 코로나 신앙(?)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온통 뒤죽박죽된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게 된다. 그가 딱딱뽀뽀 흥년은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은 단순한 가솔이나 독립을 요구하며 집을 떠난 것이 아니다...

흥년이 오기 전에 가뭄이 있었을 것이다. 가뭄은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이다...

룻기서를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흥년을 피해...

세상의 고난과 환란을 겪은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한...

이처럼 기준이 회복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됨을 본다. 우리의...

최근 목회자들의 고민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코로나가...

삶의 기준-교회와 예배

교회와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점이 된다. 기준이...

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어야 진리를 제대로 흡수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관점이다. 기존의 교회가 아닌, 성경공부...

혹자는 토요일 한국의 시간에 맞추어 설교를 듣고는 예배를...

여러보암처럼 임의로 절기의 날짜를 자신의 편리한 대로 변경함을 통해...

버지니아의 대형교회가 온라인교회의 논란에서 더 나아가...

기를 들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그 대형교회...

거기서, 시온에서

본질과 현상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분명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davidnjeon@yahoo.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인생이란?

‘인생’이란 소설의 작가이자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소설처럼 인생도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지 그 누구도 엔딩을 알 수 없다. 지금,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것이 있는가? 100세 시대에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다. 포기가 아니라 기회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는 차고도 넘친다. 당신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만큼 늙는 것이라고 조지 번스는 말했다. 인생은 그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다 고(苦)라고 말한다. 남의 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나의 손톱 밑을 파고든 가시의 고통이 더 크듯 크고 작다는 것은 객관적일뿐이며 주관적인 힘겨움은 내가 당했을 때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공감되어 눈물까지 쏟게 되는 시(詩)나 노랫말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글씨나 소리로 머물 수도 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다른 환경과 상태인지라 다양한 요구나 주장을 하나로 묶기

나 정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정과 정의가 법이면 배려와 양보는 그래서 정에 가까운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며칠 전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1987년 시작된 직선제 이후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갈렸다고 한다. 정해진 규칙이라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자는 승자라 뒤진 자는 패자가 되는 승자독식의 게임인지라 명암은 분명하고 그것이 앞으로의 5년을 좌우하며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또한 인생이다.

성공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보고 듣고 말하고 오가는 것일 수 있다.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장애를 지닌 이들에게는 최고의 목표가 되는 까닭이다. 성공이라는 척도(尺度)를 대부분 각 분야에서의 일인자로 규정하지만 누구는 청소년이나 누구 혹은 무엇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강도를 만난 이웃을 기꺼이 돕

는 사마리아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도 그 나름의 인생이다.

중국에 들어가서 처음 배운 단어가 마포(麻布/mabu)였다. 사전에서는 마포를 삼베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걸레를 뜻한다. 처음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20여 년이 지난 뒤부터 왜 중국에 가서 처음 배운 단어가 걸레였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고 많은 좋은 단어들에 얼마나 많은데 하필 걸레라니?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정부패, 불공정, 불협화음 등 단어의 첫머리에 붙는 부(不)나 불(不)을 씻어내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바로 걸레다. 더러운 것뿐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을 말끔히 쓸고 닦을 수 있는 것은 걸레 말고 다른 것이 없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걸레이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15억이 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로 종교의 자유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지닌 죄인들이기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요 16:9)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적용되는 인민(人民)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상과 정치는 이 당연한 권리를 억지(抑止)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성도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은 남녀노소 동서고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다 복음 즉 구원을 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교와 전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必須)며 의무가 아닐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명령인 것이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정의를 하며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답을 찾아 이정표를 따라 걷는 그 자체가 어려우며 힘겹다고 한다. 거기에 이제 백세 시대에 진입해 있다. 김수목 그 만큼 더 쓰디쓴 고는 가중될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답을 찾기도 어렵고 찾았다 해도 그 길을 가기가 힘겹기만한 인생에 대해 해석(解釋)하기 나름이라 정의해본다. 중국에 가서 처음 배운 단어가 걸레였는데 그것이 체제와 사상으로 병든 불변부당한 것들을 다 씻어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손아귀에 움켜쥔 듯하나 절대로 움켜쥔 것이 아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보는 것은 어떤 까 싶다. 그 해석이 절대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백세 인생의 복이 되리라.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대면예배 회복기 교회봉사자 발굴 팀

코로나 팬데믹은 예배 방식, 전도, 재정, 제자훈련 등 교회 사역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셋다운(페쇄)’과 온라인예배 전환을 거쳐 대면예배 회복기를 맞고 있는 지금, 교회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해 있다. 바로 온전한 사역 재개를 위한 봉사자를 세우는 일이다. 미국의 설문조사기관 라이프 웨이리서치(라이프웨이)는 최근 ‘봉사자 모집, 유지 위한 5가지 팀’을 소개했다.



라이프웨이는 “새로운 리더와 봉사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집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실제적인 방법을 전했다.

첫 번째는 ‘의무감 강조하기를 멈출 것’이다. 척 피터스 라이프웨이 디렉터는 “과거에는 교회 사역을 위해 충성함으로써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동역자를 구했다”며 “이는 성도들에게 소명의식이 아니라 봉사에 대한 의무감만 갖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왜(why)’를 전달할 것’이다. 피터스 디렉터는 “리더로서 잠재적 조력자에게 봉사의 긴급성과 중요성, 비전과 가치 등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직무와 기대점을 구체화할 것’이다. 이는 과거 비현실적이고 추상화된 영역 열매를 기대하며 봉사해 온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던 경험과 관련돼 있다. 피터스 디렉터는 “구체성을 높일수록 봉사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만족을 얻은 봉사자는 장기적인 리더로 성장한다”며 “주당 봉사 예상시간, 봉사 영역, 팀장과 커뮤니케이션 등 구체적인 직무를 놓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각각 ‘봉사 기간을 명시할 것’과 ‘개인적, 상시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피터스 디렉터는 “한 학기” 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정해 봉사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뒤 좋은 경험을 토대로 봉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지혜롭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단에서 전체 성도에게 봉사자 모집을 공지하는 것보다 티타임, 간단한 식사 초대 등을 통한 참여 제안이 효과적이며, 봉사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보다는 상시 기회를 주고 봉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전쟁터 된 ‘세계의 곡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식량 공급망을 마비시키면서 세계 식량위기로 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해운 물류 마비, 에너지 가격 상승, 일부 지역의 가뭄과 홍수, 산불 등으로 곡물 가격이 불안정했지만 세계적 곡창지대에 위치한 두 국가 간 전쟁이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쟁 발발 이래 밀 가격은 21%, 보리는 33% 올랐다. 곡물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쟁 당사국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은 탓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양국의 전 세계 곡물시장 점유율은 밀 27%, 보리 23%에 달한다. 해바라기유와 옥수수도 각각 53%, 14%로 비중이 높다.

비료 공급도 제한되면서 일부 비료 가격은 40% 가까이 올랐다. 러시아는 전 세계 비료 공급량의 15%를 책임져 온 최대 수출국이지만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이자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실상가상으로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럽의 요소 비료 생산설비 가동률은 45%가량 급감했다. 남미 브라질부터 미국 텍사스까지 세계 각지의 농부들은 치솟은 비료 가격을 감당 못 해 경작지를 줄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식량 공급망 붕괴로 당장 국민국에서 기아가 급증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밀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나라는 소말리아 배넌 수단 등 아프리카의 빈국이 대부분이다. 케냐에선 50kg 비료 포대 가격이 지난해 4000실링이었으나 지난주엔 6500실링에 거래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유엔은 이달 초 “전쟁이 세계 식량시장에 미치는 여파만으로 760만명에서 1310만명이 추가로 기아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상황은 재앙 위에 또 다른 재앙이 더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동부 독립타협 불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 친러시아 분리독립지역 인정을 조건으로 하는 평화협정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무산 시 안보 보장을 위한 나토 회원국과 별도 동맹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CNN 독점 인터뷰에서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타협들이 있다”며 “일부 영토를 독립공화국으로 인정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타협은 그냥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돈바스 분리주의 지역 2곳(도네츠크·루한스크)을 ‘일시적으로 점거 중인 지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중전은 물론 러시아와의 향후 충돌 방지 방안과 분리주의 지역에 대한 접근 권한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군사동맹에 가입할 수 없다면 일부 나토 회원국을 포함하는 제한된 형태의 국가연합을 모색하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의 향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게 명분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나토 회원국이 동맹에서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됐다면 즉시하라(가입시키라). 그렇지 않다면 개별 국가로부터 다른 안보 보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반격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군의 존엄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존엄성이 생명을 보존하지는 못한다”며 “협상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어떤 기회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도의 실패는 제3차 세계대전인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 우크라이나 점령 국가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인 93% “우리가 승리할 것”

우크라이나인의 10명 중 9명이 러시아군 침공에 대한 항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 위크와 방송사 폭스뉴스는 21일 “우크라이나 업체 레이팅그룹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레이팅그룹은 “우크라이나 내 모든 지역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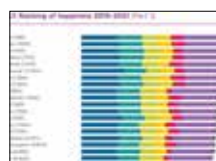
응답자의 47%는 수주 안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응답자의 23%는 수개월, 12%는 6개월 이상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응답자의 75%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대화를 지지했다. 나머지 25%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요청한 상태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4%는 나토 가입을 지지했지만 42%는 ‘협력해도 가입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가입은 물론 협력조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였다.

레이팅그룹은 “가입과 협력을 불필요하게 여긴 응답이 러시아의 침공 전보다 줄었지만 나토 비회원국으로서 협력을 지지한 의견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나토 가입을 앞으로도 러시아와 대립하는 위험 요소로 여기는 의견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행복지수 59위...1위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146개국 중 5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킹(SDSN)은 18일(현지시간) ‘2022 세계 행복보고서’를 공개했다.

SDSN은 2012년부터 국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의 3년 치 자료를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해 순위를 매겼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행복지수는 5.935점이었다. 60위인 필리핀(5.904)과 61위 태국(5.81)보다는 높았지만, 아르헨티나(5.967)와 그리스(5.948)보다 낮은 수치였다.

한국의 경우 GDP와 기대수명 항목에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항목이 이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SDSN이 발표한 2018~2020 합산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149개국 중 62위(5.845점)를 차지했다. 앞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58위, 2017년 56위, 2018년 57위, 2019년

5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발표된 행복지수 순위 1위는 7.821점을 받은 핀란드였다. 이어 덴마크(7.636점), 아이슬란드(7.557점), 스위스(7.512점), 네덜란드(7.415점)가 뒤따랐다.

북미권에서는 캐나다(7.025점)와 미국(6.977점)이 각각 15, 16위에 올랐고, 유럽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6.943점)이 17위, 프랑스(6.687)가 20위를 기록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6.512점)이 2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6.039점)은 54위를, 중국(5.585점)은 72위에 올랐다.

최하위에는 지난해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2.404)이 이름을 올렸다.

‘러 침공 나비효과’ 유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비효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독일, 이탈리아 등은 국방비 증액 논의를 본격화 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무기 구매 목록을 들고 미 정부와 방산기업들에 접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떨친 미국산 무기에 주목하고 이들 무기를 수중에 넣으려 발 빠르게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매 목록에는 드론, 미사일, 미사일 방어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전쟁에 동원했던 대공 미사일 ‘스팅어’와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등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한다. 이들 무기는 휴대용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이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일 때 유용하게 쓰였다.

실제로 독일은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제트기 35대를 사들이는 계약을 거의 마무리했다.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매도 타진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사정에 밝은 한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점령국인 동유럽 국가도 군사력 증강 일환으로 미국산 무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미국산 드론인 ‘리퍼’를 급히 구매하려 한다고 한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이번 전쟁으로 신병전이 촉발된 가능성에 대비해 국방비 지출 증대에 나섰다. 독일은 앞으로 해마다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2%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탈리아도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 2%까지 증액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지난해 독일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1.53%, 이탈리아는 1.37%였다.

유럽 내 미국산 무기 수요가 증가하자 미 정부는 일찌감치 전담팀을 꾸려 고객 응대에 나섰다. 미국산 무기를 외국에 판매하려면 미 당국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 국방부는 ‘유럽 위기관리’라는 주제 아래 주간 회의를 신설해 유럽의 구매 요청을 검토 중이다.

유럽에서의 미국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는 거리 두기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두 나라를 잇는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가스 및 석탄의 절반, 원유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얻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공급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말 가스와 원유 저장시설을 확충해 공급 차단으로 인한 위험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레이엄 메이첸이다.

메이첸은 1936년 12월 31일, 필라델피아 집에서 1500마일 떨어진 노스다코타(North Dakota)의 몇 교회들에 설교하기 위하여 갔다가 급성폐렴으로 그곳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이튿날 1937년 1월 1일,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동료교수인 존 머리(John Murry)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전보를 쳤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때문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I'm so thankful for active obedience of Christ. No hope without it). 그리고 몇 시간 후 1937년 1월 1일 오후 7시30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Ned B.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당시 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성탄절 휴일로 쉬고 있을 때에 메이첸 박사는 쉬지 아니하고 화씨 -20도의 추운 날씨인 노스다코타의 교회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에서 기차를 타고 방문한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생겼다.

메이첸의 갑작스런 죽음은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다. 왜냐하면 메이첸이 세운 웨스트민스터신학교가 출발한지 8년밖에 되지 아니했고(1929년 founded), 그리고 그가 세운 정통장로교회(OPC) 교단도 세워진지 1년밖에 되지 아니하였고(June 11, 1936년 founded), 메이첸이 1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메이첸이 세운 독립장로교 해외선교부(Independent Board for Presbyterian Foreign Missions)도 세워진지 4년 밖에(1933 founded) 되지 아니하였다.

앞으로 해야 할 이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고, 또한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최전선에서 정통신학을 방어하는 가장 뛰어난 전사(warrior)인 메이첸이 56세에 세상을 떠난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20세기 초 미국 교회의 상황은 유럽에서 밀려온 성경의 고등비판(Higher Criticism), 무신론적 진화론(atheistic evolution),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Marxist & socialist) 사상들이 미국 교회를 총 공격하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 신학교들은 이미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다 넘어갔지만 프린스턴신학교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프린스턴신학교 이사회가 메이첸을 교수직에서 박탈했기 때문에 프린스턴

까지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당시 정통신학을 비판하는 여러 종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일반적으로 "현대주의자" Modernist로 불리웠고, 현대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근본주의자, fundamentalist로 불리웠다).

메이첸은 원래 신약 신학자였지만 그가 변증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도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 때문이다. 메이첸은 불티모어에 있는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고전어를 전공했다. 메이첸은 성경 원어의 지식이 뛰어났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학을 잘 알아야한다.

메이첸은 1906년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암스트롱 교수를 돕는 조교로 임명되었다. 메이첸은 1906년부터 나중에 프린스턴신학교에서 해임될 때인 1929년까지 교수로 재직했다.

프린스턴에서 메이첸은 1907-1908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The Virgin Birth of Christ) 과목을 가르쳤고, 1930년 책으로 출판되었다. 1914년 5월 신약담당 부교수로 임명되었고 1915년 5월 신약교

ists Win?"). 포스딕의 이 설교는 당시 장로교 안의 보수주의자들, 특히 메이첸을 비판한 설교이었다. 이미 미국장로교회는 자유주의신학과의 타협이 교단적인 중론이 되었다. 소위 교단의 통일성(unity), 화합, 관용이라는 명분으로 당시 신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이었던 미국장로교회(PCUSA)가 현대주의(자유주의)에 대한 포용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중론이 되었다.

그 당시 "어번 선언"(The Auburn Affirmation, 1924년)과 "어드먼과 메이첸의 논쟁" (Charles Erdman,

이 교리를 교단의 화합을 위해 포기하였다(교회를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교회의 교리적인 순수성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되어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고백, 즉 교리를 인간적인 편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한다).

물론 어번 선언(The Auburn Affirmation, 1924년) 중심에는 헤리 에머슨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 목사 사건이 있었다. 포스딕은 당시 맨해튼의 유니언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장로교 내에서 자유주의신학을 퍼뜨리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회와 총회가 포스딕의 신학사상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노회와 총회는 포스딕 쪽으로 기울어졌고, 포스딕과 자유주의신학을 반대하면서 성경의 무오성과 정통신학을 주장하는 메이첸은 미국장로교 총회 내에서 점점 소수로 밀려나게 되었다. 결국 1926년 총회를 기점으로 미국장로교회는 정통 보수신학을 포기하고 교단의 화합을 위해 자유주의와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역사학자 마스덴(Marsden)은 "당시의 대부분의 미국장로교 교인들은 현대주의자들도 아니고, 근본주의자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단의 하나됨을 위하여 평화와 관용을 위한 제안들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부분의 미국장로교회의 교인들과 목사들은 교단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의 정통성을 자유주의자들과 타협하고 말았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 자유주의신학에 조그만 문을 열어놓고 타협하면 결국 정통 개혁주의신학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 사실은 메이첸이 지은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결국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닌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끝까지 열정적으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을 가르치며 비판한 지도자가 그레이엄 메이첸이다.

메이첸은 자유주의자(현대주의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등 수많은 저서들과 논문들을 남겼다.

한편 1928년 세인트 폴(St. Paul)에서 열린 미국장로교회 총회는 프린스턴신학교를 정통 개혁주의를 포기하는 내용의 재편을 결의했다(당시 총결정의 결과: 재편 찬성이 50%, 반대 30%, 기권 20%, the reorganization of the church was approved). 이제 메이첸은 더 이상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없게 되었다.

(10면으로 계속)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6)

그레이엄 메이첸(Gresham Machen)(상)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다. 메이첸이 지은 헬라이어 교과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교에서 헬라이어 교재로 사용한다. 존스홉킨스대학교를 졸업한 후 메이첸은 프란시스 패튼(Francis Patton)과 벤자민 워필드

수로 취임했다. 1922년 10월 9일 "바울 종교의 기원"(the Origin of Paul's religion) 책이 출판되었다.

1926년 5월 메이첸은 변증학 주임교수로 선출되었다(Machen elected

prof. of practical theology) 등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들의 핵심은 미국장로교회 총회(당시 북장로교회)가 1910년에 결의했던, '근본주의 5대 강령 (The

신앙의 정통성 지키고 자유주의신학 위험성 가르치며 비판한 지도자 1928년 정통개혁주의 포기한 프린스턴신학교 재편 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설립 정통장로교회(OPC) 교단, 독립적선교부(IBPFM) 설립 정통신학이여가

(Benjamin Warfield)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에게 배우기 위하여 프린스턴으로 갔다. 메이첸은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말부르크(Marburg)대학과 괴팅겐대학에서 계속해서 공부했다.

메이첸이 독일에서 수학하는 동안 아돌프 줄리처(Adolf Julicher), 요하네스 바이스(Johannes Weiss), 빌헬름 헤르만(Wilhelm Herrmann), 그리고 부셋(W. Bousset)과 같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거장들과 만나게 된다. 물론 메이첸이 신학적 입장은 그들과 다르지만 그러나 메이첸이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을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었다. 상대방을 비판

by Directors to the chair of Apologetics). 그러나 1926년 여름 장로교 총회는 메이첸의 변증학 주임교수 임명을 연기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장로교회 총회(당시 미국북장로교회, PCUSA)와 프린스턴신학교 이사회에는 자유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졌고 이들은 보수주의자 메이첸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22년 5월 21일 헤리 에머슨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 목사가 First Presbyterian Church(맨하탄 소재)에서 역사적인 설교를 하였다. 제목은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Shall the Fundamental-

Fundamentals)을 재확인하는 것을 반대하는 선언이다. 근본주의 5대 강령을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일이다. 근본주의 5대 강령은 1) 성경의 무오성 2)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3)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4)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성 5)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다.

1910년에 미국장로교 총회가 이 강령을 결의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장로교회의 목사들이 이에 대해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미국장로교회 총회의 분위기는 기독교 근본주의 5가지를 교단의 통일성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여겨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전 6:00(토) Tel:(702)679-7576, Fax:(702)265-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환경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215)845-1512, Fax:(215)845-2085 153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 M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적, 유산, 종교동무: (주일)오전 11:3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
새생영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 Tel:(850)423-9700, Cel: (213)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v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관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퀸론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한), (254)501-4933(국)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253)639-6675, www.tbcoma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56)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I. "죄 죽임에 관하여"의 배경

1656년 오웬이 크라이스트교회(Christ Church) 대학의 학장이며 옥스퍼드대학 부총장직을 맡을 때 그는 이 책을 저술하였다. 그때는 찰스 1세가 처형되고 올리버 크롬웰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으며 총장인 크롬웰은 옥스퍼드대학을 학문적이며 신앙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책임자로 오웬을 선택하였다.

대학의 책임을 맡은 후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하고 학생과 교수들을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힘써서 경건생활을 강조하였다. 적자에 시달리던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였다. 끝까지 대학의

직, 수도자적인 삶을 강조하였고,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도와 금식, 자기성찰과 목상을 강조했지만 그 방법을 성경대로 사용하는 참된 경건은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깨뜨려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경건을 거부하는 시대정신을 따르고 있었다.

오웬이 대학 안에 패배한 젊은이들의 불경건과 게으름, 성경적 원리에서 이탈한 종교적인 습성들 때문에 그는 이 설교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그가 말하는 핵심인 죄 죽임의 삶이 잊혀져버렸다고 탄식하였다. 이 책은 죄에 대한 그의 나머지 두 저작 "내재하는

도록 복돋아주고 싶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좀 더 분명한 지침들을 주고자 한다."

"둘째 이유는 최근에 죄를 죽인다고 하면서 위험한 실수의 함정에 빠진 일부 사람들의 행태 때문이다. 복음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선조들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죽이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고안해서 그들의 목에 씌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에 근심을 일으키고 미신과 자기 의를 날게 하는 실망스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서 그는 "은혜언약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

배하려는 속성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 이 속성과 신자는 싸워야 한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이는 일의 주체는 성령 자신이시며, 의무에 대한 인간의 순종은 도구일 뿐이다. 죄는 결코 신자를 지배할 수 없지만 신자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신자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준다.

그는 로마서 8장 13절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에서 이 교리를 이끌어내어, 신자는 일평생 죄를 죽이는 것을 자신의 일

'죄를 죽인다' 의미는 완전제거가 아닌 죄 억제와 세력약화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과 인간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

정책에 반항하는 학생들을 감옥을 만들어 지하에 가두기도 할 정도였다. 이처럼 대학의 개혁을 위해 진력하던 시기에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죄 죽임에 관하여"이다.

당시 학생들의 나이가 13세에서 17세의 연령이었기에 청소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다소 하였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를 본문으로 주해하면서 전개한 죄 죽임의 교리는 개혁과 정통주의적 경건의 핵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의 활동시기가 위대한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전해준 복음적인 경건이 점점 사라져가던 시대였다.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알미니안주의와 소키니안주의와 같은 도덕주의를 가르치는 움직임이 있었고 가톨릭의 예배형식을 따르는 영국국교회의 고교회(Hight Church)적인 분위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들은 복음적인 경건을 흉내 내어 고행, 훈련, 특별한 복

죄에 관하여"와 "죄와 은혜의 지배에 관하여"에 비교하여 포괄성이나 학문적인 철저함이 덜한 책이지만, 죄 죽임의 필요성과 그 실행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죄 죽임에 관하여"를 대변하면서 개혁자들의 탁월한 경건과 정통주의의 성경해석을 기초로 한 경건의 실천에 대한 스킨라주의적 진전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저자 서문

오웬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주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위의 유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혹들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으려는 세상을 평화스럽게 살고 있지만 동시에 속에서는 죄와의 싸움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볼 필요성을 깨닫

었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복음의 글과 정신에 부합하는 답안이 되기를 소원한다. 확실히 성도들의 마음 속에 복음적인 방법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영혼이 안전한 길을 통해서 안식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하다.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 경건해석을 기초로 한 경건의 실천에 대한 스킨라주의적 진전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전체적인 맥락

이 저서는 내재하는 죄성에 대한 투쟁으로서, '오웬의 성화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로마서 7장에 근거하여 신자 안에 죄의 세력이 내재했다고 천명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사는 존재이다.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죄의 지

로 삼아야한다고 말한다. 죄 죽임에 대하여 율법적 태도나 자유방임의 태도 양 극단을 피하고, 성령 안에서 영적 훈련과 성취를 지속해야 한다고 한다.

오웬의 "죄를 죽인다"는 말은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약화시킴으로서 죄의 세력이 신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죄의 죽임은 현재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가 순종으로 죄와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 성화의 본질이다.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시며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하며, 성화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과 인간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설교하는 이 대가의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보자.

you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3)

한 남자가 모임이 끝나갈 무렵,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 같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금실이 좋았던 아내를 병으로 5년 전에 잃고 외박하는 그의 고립되어 살다가 우연히 한부모모임에 대해 알게 되어 서너 번 참석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참석하신 날 마침 상호회중이어서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건데...' 하며 들어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 맛이야!!'가 절로 나왔습니다. 불신자의 출현은 정말 소중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흔히들 한부모 사역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한부모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한부모사역인 만큼, 첫째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그들의 배우자를 찾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물론 한부모들이 대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빈곤층의 대다수가 싱글맘 가정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지요. 싱글 대디들 역시도 자녀양육을 맡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빈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며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지출이 많아질 뿐 아니라 아무래도 가정적 불안정함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니 수입이 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 찾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나눠보지요. 특별히 남자 분들의 경우 혼자 사는 삶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만큼 배우자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큰 외로움을 느낄 뿐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문화의 영향으로 주위의 시선에 대해 예민해지는 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님에도 혼자서 교회 참석이 미처아니하고 함께 회회를 떠나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앞에서 보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짝을 찾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물질이며 배우자를 찾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교회의 일반 모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혹은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목을 생각해 본다면 인도자가 시원한 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라 '나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해주는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 곧 공감대가 있다는 것 자체로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5:3)라는 구절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회개하고 매달릴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곧 물질, 명예, 행복을 채우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췌록 한부모들에게 대한 애뜻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인도자들께서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되더라도 묵묵히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세세운교회)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

독일의 시인 에리히 케스터너가 쓴 "마주보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마주봅니다. 참된 인생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마주보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말이 "조화롭다"에서 나왔고 "나쁘다"는 말은 "나쁜이다"란 말

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조화로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26장에 나오는 이삭은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사하는 땅에 기근이 오자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해에 백배의 복을 주셨고 왕성하고 창대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샘을 팠는데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샘을 빼앗았습니다. 그 귀한 샘을 얻었음에도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내어 준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배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배풀어준 이삭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

니다. 샘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10개 파면 1개 나을까 말까 하는 박토에 파는 대로 샘물이 터져 나왔으니 그랄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힘이 없어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병들이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를 지키기 위해 318명의 사병을 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사병을 기르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면 그들에게 양보하며 배풀고 떠났습니다. 싸우는 시간에 다른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3번을 빼앗으니 양보해주고 4번째 샘을 파니 또, 물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르호봇이라 이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원수들을 위해 잔치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감정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인생, 복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넓은 마음,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시편37:11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5:24)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현실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감옥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6개의 감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자신의 기분에 다른 사람이 맞추려고 합니다. 2)질투의 감옥: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나고 혈통고 싶어집니다. 3)비판의 감옥: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고 혈통다가 결국 원수를 맺게 되는 마음의 감옥입니다. 4)과거지향의 감옥: 옛날이 좋았다고 하며 과거의 추억에 매여 시간을 낭비하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5)선망의

감옥: 내 떡이 소중할 줄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를 씩씩버립니다. 6)절망의 감옥: 작은 고난만 닦쳐도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6가지 마음의 감옥이 내면에 있어 그 감옥 속을 차레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인생은 그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32에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데는 진정한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을 지휘하던 부수장군은 전쟁에 참패하여 전멸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남은 부하들은 모두 숲속으로 도망가고 부수장군은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동굴어귀에서 거미가 줄을 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 6번을 실패하였지만 7번째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부수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겨우 한번 실패했다" 그리고 다시 군사들을 모아 전쟁터로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수장군은 전

쟁에서 역전승을 거두기전에 먼저 자신 속에 있는 패배의식과 좌절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감과 내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모든 환경이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 가고 있습니다. 건강문제, 가족문제, 경제문제, 인간관계 등 살아가다보면 극복하기 힘든 여러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참된 권세자 예수님께 올려놓으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라고 했습니다. 이삭처럼 자신을 잘 다스려 승리하므로 하나님께 복 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songkpak@hotmail.com

새노회장, 이동진 목사(남가주), 송일영 목사(로스앤젤레스)

KAPC 남가주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부지역 2개 노회 정기노회가 지난 3월 8일(남가주노회)과 15일(로스앤젤레스노회) 열렸다. 각 노회들은 새 임원을 개설키고 5월 10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총회를 준비했다.

남가주노회

남가주노회 제 70회 정기노회가 지난 8일 오전 10시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에서 열렸다. 40여명의 회원 목사와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노회에서는 신임 노회장에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부노회장에 양경선 목사(샘물교회)를 선출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열린 1부 예배에서 이동진 목사는 '살아나는 생명공동체(행4:24-3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팬데믹을 통과해낸 순종과 인내의 믿음을 바탕으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



남가주노회 70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노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노회는 평안한 가운데 회무를 진행했으며, 새로 구성된 성화장로교회 마당침터에서 점심을 나누며 오랜만에 대

면한 회원들간의 교제를 나누었다.

본 노회에서 선출된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동진(성화장로교회) △부노회장: 양경선(샘

물교회) △서기: 윤목(한인소망교회) △부서기: 정경민(Hope of Glory교회) △회록서기: 이광형(복음장로교회) △부회록서기: 박준식(서문장로교회) △회계: 최태규(양문장로교회) △부회계: 성영웅 장로(성화장로교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

로스앤젤레스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제38회 정기노회가 15일 오전 10시 남가주주둔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열려 송일영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노회장 조정기목사 사회로 시작돼 이대용목사 기도 백현 목사 성경봉독 송일영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송 목사는 '부딪히되'(마7:24-27)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듣고도 반석위에 짓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손이다 예수님께 기초를 뒤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살아도 어려움은 닦쳐온다. 삶 가운데 부딪침이 있다. 때로는 비도오고 창수가 내린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 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속에 주님이 계시면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 되신 반석위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스스로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

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강인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을 가진 후 박대원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를 통해 각 부서의 보고를 받은 뒤 신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새롭게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송일영 목사 △부노회장: 이대용 목사 △서기: 이훈우 목사 △부서기: 양인수 목사 △회록서기: 백현 목사 △부회록서기: 이경휘 목사 △회계: 이재용 장로 △부회계 김현인 목사. (이성자 기자)



철순과 성역 49주년, 3분의 미라클 출간 축하연을 가진 이정현목사와 이희은 사모.

이정현 목사 철순과 성역49주년 의미 더해

"3분 미라클" 출판기념회 및 축하연

이정현목사/이희은사모 철순 축하연 및 이정현 목사 저서 '3분 미라클' 출판기념회가 3월 19일 오전 12시 LA소재 용수산 회관에서 열렸다.

"70/49/3 축하연"이란 의미를 담은 이날 행사는 이정현 목사부부의 철순과 성역 49주년, 그리고 3분 미라클의 출판을 의미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이날 개혁장로회대학원 학감 김동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권영화 장로(빛과소금의교회)기도와 양수철 목사(KAPC전 총회장/현 개혁장로회신학대학원 이사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양수철 목사는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사50:4-7)란 제목으로 "학자는 학문과 삶이 일치해야 하며 진정한 학자는 잘 배우는 자이고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는 자이며 곤고한 자를 돌보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쪼록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완성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민경선 교수의 바이올린 축주가 있었으며 박대근 목사(개혁장로회대학원 교수),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 강동균 목사(미주목회자탁구동우회 회장), 권명옥 권사(빛과소금의교회)의 축하메시지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3분 미라클' 출판기념회에서는 김삼도 목사(실비치평강교회 담임)의 서평이 있었다.

김삼도 목사는 "본서는 이민 생활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요, 정서적으로 시원한 생수와 같다"며 "개혁주의 신앙에 바탕을 둔 성경적인 메시지는 쉬우면서도 우리 삶에 지혜와 통찰력을 준다"고 평한 뒤 축송으로 축하의 분위기를 더했으며 최학량 목사(전 고신총회장, 이승만기념사업회 LA 회장)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이날 이정현 목사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출간된 '3분 미라클'을 증정했다.

이정현 목사는 총신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장합동 중서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뒤 한국 육군 군목으로 군선교사역과 서울 성도교회 부목으로 사역하다 1982년 도미, 웨이스 신학대학원(STM), 풀러신학대학원(D. Min), 캘리포니아신학연구원(Ph.D)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과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예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QR cod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제27회 유럽목회자 세미나

제27회 유럽목회자 세미나가 6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팬데믹 상황에서의 선교(행8:1-4)"라는 주제로 SHG HOTEL ANTONELLA(로마, 이탈리아)에서 열린다(주소: Via Pontina, km 28, 00071 Pomezia RM, Tel: +39 06 911 481). 이용 공항은 Rome Ciampino(잠피노 공항) 또는 Rome Fiumicino(FCO,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 강사는 김영복 목사(의정부 사랑평화교회), 이어백 목사(주사랑교회), 이찬용 목사(성만교회). 선착순 50명이며 신청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ome2jx@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회비는 1인당 280유로(3박4일 여행경비).

▲문의: come2jx@hanmail.net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와 함께 하는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집회가 4월 1일(금) 저녁 7시부터 2일(토) 새벽 6시 이후 7시, 3일(주일) 오전 10시, 오후 1시(세미나)가 열린다. 특히 2일 오전 10시에는 지역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가 진행된다. 강사는 송민호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담임)로 주제는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이다.

▲문의: (718)706-0100

“함께 걷기(Walk For Hope)” 모금행사

패밀리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함께 걷기(Walk For Hope)” 모금행사가 4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뉴저지 Overpeck 파크에서 열린다. 이 모금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된다.

▲문의: (201)242-4422



디모데목회훈련원 관계자들. 앞줄 왼쪽부터 박종교 장로, 이용걸 목사, 윤영호 목사.

디모데목회훈련원 비영리법인 설립

원장 이용걸 목사 40년 목회노하우 전수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 이용걸 목사가 은퇴 후 설립해 사역해온 영생목회자훈련원(이하 목회자)을 전 세계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모데목회훈련원으로 다시 세워졌다.

디모데목회훈련원은 지난해 5월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3월 17일 오후 1시 산수갑산2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과보고와 목적, 목회훈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원장 이용걸 목사는 훈련원 설립배경을 설명하며 “선교사를 소망했으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사용하셨다. 은퇴후 낯시나 하며 쉬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 세계를 다니며 목회자훈련 사역을 하게 하셨다. 아프리카 등 제 3국의 목회자들은 열정은 있으나 목회방법을 모른다. 또 미동부 지역 교회들도 힘든 가운데 목회하는 것을 보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생각으로 40년 목회 노하우를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부원장으로 동역하게 된 윤영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는 “훈련원은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이었다”며 “선교지에 가 보면 건강할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용걸 목사의 세미나에 참석해 기본적 목회자의 자세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이뤄지는 목회부흥을 들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임을 확

신한다”고 말했다. 박종교 이사장은 “먼저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주시길 바란다”며 “년 500달러 이상 후원하시면 정기가 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안수 장로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요셉 장로와 우장환 장로, 찬양팀 G2G의 박승호 이승기 안수집사가 참석해 이용걸 목사의 영생장로교회 목회당시 은혜 받았던 간증을 하며 훈련원을 위해 적극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디모데목회훈련원은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복음주의신학과 현장목회 노하우 재교육훈련 제공 △성경적 영적 지도력을 갖추기 위한 영성 부흥집회 제공 △교회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전도훈련 제공 △목회와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목회자, 선교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비, 생활비 등 재정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훈련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ptsmisson.org를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이메일 info@ptsmisson.org, 전화 (201)954-1193로 하면 된다.

한편 이용걸 목사는 이날 오전에는 뉴욕영안교회에서 열린 한기부 뉴욕지부(지회장 김경렬 목사) 3월 월례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이준성 뉴욕교협부회장 더나눔하우스 방문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뉴욕교협 부회장 이준성 목사(양무리교회 담임)가 한인노숙인 쉼터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를 방문해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예배 후 20여 명의 더나눔하우스 가족 모두를 나누고 식사 제공을 하고 격려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박성원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고 식당 방문 및 야외활동을

자제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을 때에도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아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또 뉴욕과 뉴저지 교회와 담임목사님들의 기도와 쉼터구입 후원 동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더나눔하우스를 방문해 노숙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더나눔하우스)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가져라!”

뉴욕교협 목회자 세미나, 강사 정성욱 박사

뉴욕교협 목회자 세미나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3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주사랑장로교회(담임 정준성 목사)에서 정성욱 박사를 강사로 열렸다.

초무 임영천 목사 인도로 열린 세미나에서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는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 강의를 위해 모든 순서를 제했다. 이 시간 강의를 통해 소망과 비전, 꿈을 갖는 시간 되기 바란다”며 강사를 추천해준 김준호 목사(뉴욕장신대 학장)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강사소개에 나선 김종훈 목사는 “정성욱 박사를 뉴욕장신대 개강강경회 강사로 초청했는데 뉴욕교계를 섬기고 싶어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강의 교재로 사용될 정 박사의 저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사회적 혼란기에 이단이 성행함을 역사를 통해 보았다. 요즘 뉴욕일원에 신천지 등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확실한 종말론에 대한 인식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사 정성욱 박사는 덴버신학교 조직신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제자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Ph. D(조직신학)를 받았으며 저서 중 “스피드조직신학”은 현재 자비포플 조직신학 부문 1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정 박사는 “종말론에 대한 책과 강의가 많지만 대부분 ‘어둡고 두려운’ 것으로 접근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종말은 밝고 행복한 것”이라며 “한국의 패밀리아디오 해롤드 캠핑 등 단 등 시한부 종말론과 연계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교협 목회자 세미나 오전 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믿음을 행동으로 말하라”...

(7면에서 계속)

결국 프린스턴신학교 이사회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장악이 되었고, 정통 개혁주의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점차적으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메이첸이 프린스턴을 매우 사랑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정통적 기독교 진리와 개혁신학을 지키기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신학교를 졸업한 자들이 미국장로교회에서 안수 받을 수 없었고 사역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메이첸은 어쩔 수 없이 웨스턴민스터신학교와 신학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교단인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를 만들었다.

사실 메이첸의 뜻은 웨스턴민스터신학교에서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난후에 미국장로교회(PCUSA)에 목사로 사역하면서 교단을 개혁하기를 원했지만 교단의 정치적인 권력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미국장로교(당시 북장로교, PCUSA) 선교부 소속 파송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소설가 펄벅(Pearl Buck)

또 정 박사는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덮어두는 무책임한 자세나 맘대로 해석하는 혼돈 속에 있으며 팬데믹도 종말이 가까웠다는 견해에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백신을 안 맞는 것 등은 신학적 이유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종말론은 신랑(예수 그리스도)을 기다리는 신부(교회)의 종말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혼이다. 예수 초림은 정혼(잔치만 남겨놓은 상태)이며 예수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자들로 신랑 예수를 증거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또 종말론의 2가지, 개인적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 강의했으며 역사적 종말론의 4가지 관점 중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자신의 입장이라며 상세히 설명하고 세대주의, 무천년설, 후천년설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성경 전체는 하나님나라를 관통하는 주제”라며 “교회는 이스라엘+이방인으로 구성되며 그 기원은 창세전으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운동은 잘못된 것으로 유대인은 복음전도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체신학’의 문제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메시아니즘은 예수재림의 징조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박사는 자신의 저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으며 주사랑장로교회가 제공한 오찬 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김성국 목사 부총회장 추천(뉴욕노회)

조이러브처치 설립, 이상익 목사안수(남노회)

KAPC 뉴욕노회, 뉴욕남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뉴욕노회와 뉴욕남노회 정기노회가 지난 15일 열렸다. 뉴욕노회는 오전 10시 부르클린제일교회(담임 이윤석 목사)에서, 뉴욕남노회는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뉴욕노회

뉴욕노회 제 90회 정기노회 개최예배는 노회장 이종원 목사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부회록서기), 설교 이윤석 목사(부노회장), 성찬예식 집례 홍훈식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광고 임영천 목사(서기) 순서로 진행됐다.

이윤석 목사는 “당연히 맺힐 열매”(마21:18-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도자로서 당연히 맺힐 열매는 변화의 열매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은 당연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맺히었어야 할 첫 열매를 맺지 못한 지도자들에게는 책임과 더불어 기회를 주십시오. 위선과 의식이란 고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울만큼 불가능한 것들도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먼저 변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진정한 주의 제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천부 보고를 통해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윤석 목사 △부노회장 임병순 목사 △서기 정기태 목사 △부서기 방정훈 목사 △회록서기 정인수 목사 △부회록서기 박병섭 목사 △회계 차상남 장로 △부회계 박정봉 장로.

회무처리에서는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태 목사)의 뉴욕주님교회로 합병(2021년 10월 17일 합병예배)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명칭을 ‘새벽별주님교회’로 명칭 변경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이숙규 목사 계속 파송 △김바울 선교사의 워싱턴DC 거주로 워싱턴노회로 이명 △예사랑교회(손한권 목사) 윤영환 목사 부목사로 계속 청빙 △델린교회(임영천 목사) 이재환 목사 전도목사로 계속 청빙 △주비전교회(이규본 목사) 3인(박휘영, 한우연, 현종영) 부목사 계속 청빙, 김대진 목사 전도목사로 계속 청빙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김재상 목사를 부목사로

청빙, 11인(이신은, 김정민, 허준, 최진식, 쉼위지, 차평화, 장훈, 손요한, 김현수, 김재형, 김도현) 부목사로 계속 청빙을 허락했다.

이날 뉴욕노회는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를 오는 5월 열리는 총회의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뉴욕남노회

뉴욕남노회 제22회 정기노회 개최예배는 노회장 임흥섭 목사 인도로 기도 이재덕 목사, 설교 부노회장 전현수 목사, 성찬예식집례 권영국 목사, 광고 서기 조영찬 목사, 축도 김재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현수 목사(기드온장로교회)는 “므리바 물”(민20:10-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사는 노회원들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는 공천을 통해 새 임원들이 선출됐다.

△노회장 전현수 목사 △부노회장 김재열 목사 △서기 조영찬 목사 △부서기 심언 목사 △회록서기 이영록 목사 △회계 서명환 장로 △부회계 이재량 장로.

시찰회 보고를 통해 사역 상황과 소식들이 소개됐으며 각 부 보고가 이어졌다.

박준영 목사(전 뉴욕센트럴교회 EM담당)가 조이러브처치를 설립하고 노회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청원이 소개됐다. 조이러브처치는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 공간을 사용하며 4월 24일(주일) 오후 5시 설립예배를 드린다.

또 지난 정기노회에서 목사 고시에 합격한 아이작 리(이상익, 뉴욕센트럴교회) 전도사가 3월 20일(주일) 목사안수를 받는다. 이 전도사는 웨스턴민스터신학교를 졸업했다.

신일 노회장 전현수 목사는 헌법에 명시된 각부 역할을 명확하게 소개하는 유인물을 준비했으며, ‘활요나 ‘증경회장’ 등 회의 용어를 쉬운 말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장신대 2022 봄학기 경회에서 강준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강사 강준민 목사 서정운 목사 미주장신대 2022 봄학기 사경회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2022 봄학기 사경회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와 서정운 목사(미주장신대, 광나루장신대 전 총장)를 강사로 3월 15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첫 번째 시간은 '광야의 사람(출3:1-5)'이라는 제목으로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강준민 목사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키워 부흥을 주도케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실 때 서두르지 않으시고 서서

히 키우신다"며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리더십이 탁월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흥을 준비시키신다. 하지만 모세는 실패하게 됐다.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은 외로운 길"이라며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불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부흥을 주도케 하신다. 불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

로 알게 된다. 셋째, 불과 함께 어린양의 피를 통해 부흥을 이루신다. 넷째, 불과 함께 말씀을 통해 부흥을 이루신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공부해야 할까? 신자들은 목회자가 많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말씀을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할 때 목회자의 권위가 있고 그럴 때 성도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며 "하나님 말씀의 충만이 중요하다. 말씀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늘 경험했으면 한다. 하나님

은 교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드신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시간은 강준민 목사가 '기도의 사람(왕상17:17-24)'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은 서정운 목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3:18)'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세미한교회 노스캠퍼스 입당감사예배에서 관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부터 원은 이날 말씀을 전한 이은상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기도 헌신 눈물 결과

세미한교회 노스캠퍼스 입당 및 월드지역연구소 오픈 감사예배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 노스캠퍼스 입당감사예배 및 월드지역연구소 오픈 감사예배가 3월 18일 오후 7시에 열렸다.

이은상 목사는 "노스캠퍼스가 세워진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며 둘째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눈물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노스캠퍼스가 7개 목장으로 시작됐다. 더욱 많은 목장이 일어나 하나님 기쁘신 교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찬 목사(본 교회 목회지원총괄)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열린 예배는 권기호 장로가 대표기도, 세움센터 특별연주, 김형민 목사(남침례교 텍사스 컴벤션)와 존 최 목사(세미한교회 EM)가 축사했다.

이어 노스캠퍼스 목자와 목녀 찬양, 강승수 목사(한인남침례교회 총무)가 권면했으며 강

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알란 마샬 박사(UMSI 대표), 나단 노릭(SBTC 선임디렉터)가 영상으로 권면했다.

이어 본 교회 노스캠퍼스 TF 팀에게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축하영상이 소개됐으며 최병락 본 교회 설립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20만달러 헌금을 세미한교회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병락 목사가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며 이은상 목사가 '함께 꿈꿔봅니다(눅5:3-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최병락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원 박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지 발간은 대부분의 대학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커머셜리즘에 빠지지 않고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대학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논문들을 발표하는 학술지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여한 교직원과 동문,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갖고 학생회 주관으로 함께 학교를 위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헨리아펠렐라대학교)



대흥장로교회 김정훈 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치고 순서맡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되도록 대흥장로교회 김정훈 담임목사 취임식

대흥장로교회 김정훈 담임목사 취임식이 20일 오후 3시에 열렸다.

김정훈 목사는 "대흥장로교회 사역하면서 대흥장로교회가 예수님이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며 성도 한분 한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며 "하나님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흥찬양팀 찬양인도와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서건오 목사(CTW교회)가 기도했으며 대흥연합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람의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계2: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창수 목사는 "1세대가 언어와 문화 장벽을 뛰어넘어 교회에 올랐는데 그다음 세대에 교회가 마켓으로 바뀔 수 있다. 대흥교회가 다른 용도로 바뀌지 않기를 축원한다. 그러려면 첫사랑이 회복돼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 대흥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첫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바란다. 첫사랑을 유지하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일편단심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기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과 만남이 매일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과 깊은 사귀어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 하나님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취임식은 인도자가 담임 목사 소개, 취임서약, 회중서약, 통성기도, 취임인사로 이어졌다. 3부 축하 시간은 김성수 총장(에반젤리시대학교),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이재학 목사

(디모데성서연구원 대표),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시교회)의 축하영상, 남성중창단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노창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자치연회의 중심적 역할하길”

헨리아펠렐라대학교 개교기념 및 학술지 발간 축하예배



헨리아펠렐라대학교 개교기념 감사 및 학술지 발간 축하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헨리아펠렐라대학교(총장 정인호 박사)는 3월 13일 오후 4시 남가주 빌라델비아교회에서 개교기념 감사 및 학술지 발간 축하예배를 드렸다.

교수와 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Zoom)으로 동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 정인호 총장은 '신학교의 사명'이라는 설교를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학교의 보배임을 강조하면서 4월에 있을 인가기관의 실사를 잘 마짐으로써 신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조현영 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6년 국외선교연회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으로 시작해 1997년 미주감리교신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법총회에서 미주지역 목회자 양성 정규 신학대학으로 인준 받았음을 회고하면서 헨리아펠렐라대학교가 클레어몬트와 공동학위 과정을 포함한 MOU를 맺었는데 이어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와 MOU를 맺었고 오는 3월 28일 목원대학교와도 MOU를 맺으므로 한국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학대학교들과 교

류한다고 덧붙였다.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은 헨리아펠렐라대학교의 개교기념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미주자치연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정영철 선교사(러시아), 김미선 목사(벨리연합감리교회), 박상원 목사(서울 광복교회), 배종완 감리사(성림교회) 등 동문들의 축하와 격려의 말이 있었다.

이어 진행된 신학전문지 "아펠렐라신학저널" 창간호 발행 축하시간에는 편집위원장인 임봉대 박사가 학술지 발간 의의와 과정을 소개하면서 "아펠렐라신학저널이 국내외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되고 신학교육과 목회현장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

수상자 김기순 회장 “자랑스런 한국인 자부심 가져라”

소망소사이어티 ‘아름다운 삶의 여정’ 상 시상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제3회 아름다운 삶의 여정상 시상식을 11일 오전 11시 세리토스퍼포밍아트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김기순 회장은 "이민자를 당시 인종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1.5세와 2세들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결심했다. 청소년후원

서부교계 게시판

세계기도일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135년 역사의 세계기도일 예배를 주관하는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소속인 '세계기도일 여성 합창단'(World Prayer Women's Chorale) 단원을 모집한다.

▲문의: 유화진 (562)569-9133 / 전현미 (310)381-9835

제3회 KFAM 한인가정상담소 골프 토너먼트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염)가 위탁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오는 4월 14일(목)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1509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에서 개최한다. 올해 3회째 맞는 이번 대회는 '사랑 나눔(Share the Love)'을 주제로 열리며 이 행사로 조성된 후원금은 위탁아동 및 가정을 돕기 위한 비용으로 총당될 예정이다. 행사 후원은 기부금액에 따라 5타이틀 스폰서 15,000달러, 5월바트로스 스폰서 5,000달러, 5이글스 스폰서 3,000달러, 5포섬(FOURSOME) 1,000달러이며, 물품 후원도 가능하다.

▲문의: sslee@kfamla.org, (213)235-4869

GCC후원음악회

그레이크뮤니티센터(대표 김미선 교수) 주최 GCC 후원음악회가 26일(토) 오후 5시 Sallims Church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크리스전 전 마림바 연주자의 마림바 연주회로 열린다.

▲문의: (213)369-3860



감사한인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예배에서 김영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들어가라 감사한인교회 설립 39주년 기념예배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설립 39주년 기념예배가 20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구봉주 목사는 "39년 동안 교회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는 교회, 마지막 시대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붙들고 하나님 섬기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감사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구봉주 목사 사회로 오전 11시30분에 시작된 예배는 서서한 장로가 기도했으며, 사랑성가대가 찬양했다. 이날 김영길 원로목사가 '신앙생활의 3대 원칙(롬8: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영길 목사는 "누구나 인생의 후반기에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몇 가지 흐름을 알게 된다. 그 흐름은 삶의 원칙이요 일관성 있는 마음가짐이다. 그 마음가짐이 인격을 형성한다"며 "이런 원칙, 마음가짐이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지배하고 인격을 형성한다.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가운데 기록돼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첫째, 예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다. 그래서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위해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십자가 통해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절대적 소망을 하나님께 뉘어 한다. 고난을 겪는 것은 승리자로 겪는 것이다.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구봉주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구봉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력소개를 했으며 유분자 이사장이 시상자로 나서 김기순 회장에 상을 수여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커뮤니티를 위해 평생 봉사하신 분들이 많다. 나누고 내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들이 있어서 한민사회가 발전해왔다. 이 민사회의 삶의 롤모델 선정하고 널리 알리는데 1.5세 2세, 그리고 3세들에게 1세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테너 김성봉(아르모니아싱어즈)이 축가를 불렀으며 그레이스 김(2회 수상자), 최하영 LA영사, 영김 거주연방의원원, 전홍식 회장(청소년후원회), 박경희 이사장(한미장학재단), 제임스리 상무(서울메디컬그룹)이 축하했으며 제갈소망씨가 피아노 축하연주를 했다.

김기순 회장이 수상자 답사를 했으며 이은철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 삶의 여정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교총-한기총 통합’ 가시밭길 여전

한기총임원회 통합안건 부결...한교총 “한기총 임원회 통과후 재론”

교계 연합기관 통합이 또다시 물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임원회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작성한 통합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반대하면서 통합은 무산된 듯 보였다. 그러나 당시 한기총 임원회 절차에 대한 이의서가 접수돼 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이 생기면서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현성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은 21일 “임원회 참여 인원을 계수하는 상황과 기본합의서 찬성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의서가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자가 있다면 임원회를 다시 열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기총 임원회에서는 한교총에 속한 세계교회협의

회(WCC) 찬성 교단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투표 결과 찬성 14표, 반대 17표가 나왔다. WCC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 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등 대형 교단들이 가입돼 있어 이 교단들을 제외하고서는 통합이 이뤄지기 어렵다. 한기총 임원회가 다시 개최된다면 기본합의서 통과 여부를 재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개최된다고 해도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기총 내 통합을 원하는 인사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한기총 내부 관계자는 “임원회에서 통합

안건이 또다시 부결된다면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등에서 다시 다룰 수 있다”며 “아직 통합이 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산을 넘어도 이단 시비가 있는 한기총 내 회원 교단 처리 문제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한교총은 한기총이 기본합의서를 통과시킨다면 다시 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강석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은 “한기총에서 임원회를 다시 열 것이라고 본다”며 “임원회에서 통합을 찬성하면 다시 세부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회)

아홉 번 죽는 조기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인생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것인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담임선생이 졸업생들에게 필관 글씨로 “人人人”, 사람 ‘인’(人)자를 네 개 적어놓고 훈시를 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나?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사회 초년병들에게 먼저 사람이 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가치 있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만 산다면 하루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래 사느냐? 성공하느냐?”가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짧은 생입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야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답게 사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주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작가 공순해의 수필 ‘비굴한 굴비’라는 글에 보면, 조기가 굴비가 되려면 아홉 번 죽는다고 합니다. 그물에 걸려 죽고, 소금에 절여 죽고, 냉동되어 죽고, 관에 쪼려 죽고, 건조할 때 말라 죽고, 냉동실에 다시 들어가 죽고, 손질하는 칼 아래 죽고, 불 위에서 익어 죽고, 드디어 인간의 입속으로 사라져 장렬히(?) 전사(戰死)한다는 것입니다. 조기가 맛있는 굴비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아홉 번이나 죽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정합니다.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할까요? 또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bible66@gmail.com

성서공회, 우크라이어 성경 긴급 제작

쪽복음 1차 발송 이어 신구약 전체 제작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의 긴급 우크라이나어 성경 제작 작업이 시작됐다. 대한성서공회는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의 요청에 따라 1차로 요한복음 현지어 파일을 입수해 조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신구약 전체가 담

긴 우크라이나어 성경 파일도 이날 추가로 전달돼 곧 인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우크라이나성서공회 관계자들이 대피하지 않고 수도 키이우(키예프)에 남아 성경 보급 요청을 계속 보내오고 있

다”면서 “급한 대로 요한복음이 담긴 쪽복음을 인쇄해 1차로 발송하고 이어 신구약 전체 성경을 빠른 시일 내 제작해 현지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법인인 대한성서공회는 성서의 번역 출판 판포를 담당하는 비영리기구로, 경기도 파주에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쟁은 물론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현지어로 성경을 제작해 무

상 기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1000개 넘는 언어로 3000여종의 성경을 제작해 해외에 보급했다. 호 총무는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가 다수고 개신교가 소수인데, 가장 영적인 복음인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요청해 왔다”면서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육성이 담긴 말씀 원문을 접하고자 하는 의도로 임한다”고 전했다.

“신천지 위장포교 위법...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판결...피해자들, 손배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원이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교주)의 ‘모략 전도’를 위법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모략 전도에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묻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지난 11일 신천지 신도였던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지파와 신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신분을 속이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 전도’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중 한 명이 A씨에게 신천지 신도를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

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마치 강의를 처음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고, 다른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서 속이는 등 공동으로 모략 전도함으로써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도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종교 선택 자유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입장문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일부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신천지에 모략 전도 책임을 묻고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판결에 더해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물게 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강식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의 악랄하고 집요한 사기 포교가 근절되길 소망한다”며 “탈퇴자들의 소송과 고발 운동이 이어져 신천지 조직이 해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안 헌법소원 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교회·사학법인·학부모·교원등 연대

한국교회와 기독교사립학교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는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날 기독교 사학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면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 승인 취소조항 등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헌법소원 제기 근거와 과정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기독교학 헌법소원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 선임했다. 이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 관련 학자들

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헌법소원을 준비했다. 사학미션 측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 헌법소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입수한 대선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 측은 “사학 운영의 중요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 기간 “(교계가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야 협力が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학미션은 헌법소원 청구에 이어 본안심리에서도 추가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교회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및 법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이라며 “한국교회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소한 정명석 또 성폭력” 증언

JMS 피해자 2명 회견...경찰 고소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이미 한 차례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정 교주가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 교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이 16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영국 국적의 피해자 메이플(29)씨가 나왔다. 호주 국적의 또 다른 피해자 B씨(30)는 영상으로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고소대리인 정민영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메이플씨는 “JMS는 정 교주를 신랑처럼 여기고 정성껏 사랑하게끔 세뇌 교육을 한다”며 “처음 성폭행당했을 때도 설득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차 피해를 당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지인들의 조언으로 정신이 들었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실을 밝히고자 나왔다. 정명석은 절대 메시야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왔다는 메이플씨는 기자회견 내내 고통스러운 듯 배를 움켜쥐면서도 웃으며 발언을 이어갔다. 메이플씨는 출근 한국어로 발언했는데 “정의를 살아왔다고 믿는다”는 부분에서는 “아이 빌리브, 데이 윌 비 저스티스(I believe, there will be justice)”라며 영어로 말했다. 22세 때인 2014년 JMS 호주 관계자들과 성경공부를 하

다. 정명석은 정 교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준강제추행 등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JMS 측으로부터 받은 협박성 영상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JMS 관계자는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JMS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탈퇴 여성들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장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가 신도가 된 B씨도 한국에 들어온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JMS 측으로부터 받은 협박성 영상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JMS 관계자는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JMS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탈퇴 여성들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장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평화·교회 일치위한 초교파 여성기도운동

한국교회 ‘세계기도일예배’ 참여 100주년 맞아

세계 평화와 교회 일치를 위한 한국교회 여성들의 기도가 한 세기를 맞았다. 한국교회가 ‘세계기도일예배’에 참여한 지 올해로 100주년인 것이다. 세계기도일예배는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 전 세계 180여 개국 여성이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원계순)가 주관하고 있다. 세계기도일예배는 1887년 미국 장로교 메리 제임스 국내

있었다”며 “이 사건으로 선교사들이 추방되면서 예배가 중단된 적도 있었으나 해방 후에는 한국전쟁 때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등 100년간 예배 주체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예배는 이어졌다. 올해 세계기도일예배에서는 창조세계 보전, 여성과 어린이의 행복 등을 놓고 기도했다. 15일에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100년 감사예배를 열고 앞으로는 교회 여성들이 세계와 교회를 품을 것을 다짐했다. 원계순 회장은 “100년간 이어온 기도의 무릎이 앞으로도 전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 부의장이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민을 위해 ‘기도의 날’을 정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캐나다 등지로 확장돼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각 나라가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작성해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1922년 시작한 이래 1930년, 1963년, 1997년 세 차례 공동 기도문을 작성했다. 헌정일 세계기도일 위원장은 16일 “1941년에는 당시 ‘만국부인 기도회’로 불렸던 세계기도일예배에 참여한 여성 607명을 일제가 체포하는 아픔도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선교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좋은 교회가 좋은 선교사를 만든다고 한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다. 좋은 경험에 갇혀 지내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어 고두를 그런 잣대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특히 부족한 현지인들과 성숙하지 못한 현지 교회를 선교사가 알고 있는 좋은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이상화 할 우려가 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고,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 변해야 한다. 그러나 선교사가 가진 고정관념에서 틀을 만들어 변하지 않을 때에 선교사는 선교지에 맞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한국선교사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이 한국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국기독교회 지도자

중국기독교회의 전국적인 지도자를 2000년도에 만난 적이 있다. 장풍량이라는 대표적인 허난교회의 지도자였다. 그 때에는 감시가 심한 시기였기에 비밀스럽게 만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였다. 한국교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감사하며 부탁한 말이다.

첫째는 중국에는 이미 중국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 한국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우리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관념을 고착시키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 가득하다. 나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과연 그들이 중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맞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지금 당신들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의 대답은 “우리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강 몇명 정도가 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대략 7백만명 정도 될 것입니다.” 입을 다물게 하는 숫자였다. 한국교회 전체가 일천만을 말하는데 중국기독교회 한 지파가 7백만명이라는 것이다. 그 후 작은 교회들이 합하여 몇 년 후엔 천만을 넘는 성도들이라고 발표가 되었다.

나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장 형제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신학을 어디에서 공부하였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하였

다.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책들을 읽으며 배웠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공부한 것은 ‘목자의 지팡이’라는 교재를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제자훈련101 같은 교재이다. 바로 그 교재를 배우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아니 예수를 믿고 바로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이어서 “나는 전도하다 감옥을 자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며 배웠습니다.”

선교사의 고정관념은 내가 다닌 교회의 규모, 신학의 배경, 조직의 확고함들로 가득 차 있어 있다. 그런 사고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에서 자신이 열두 사도 이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타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물론 개척선교지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늘날 선교지는 수없이 많은 기도와 노력의 한국 선교사가 가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것에 대해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함께 있을 때에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작은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오선지가 아니니 숫자가 적혀있는 찬송가였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작곡, 작사가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

잠깐 놀란 나에게 그 작곡가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바로 열방에 자매가 있었다. 나는 곧 그 자매를 만났다. 류샤오민이란 자매였다. 나는 “자매님, 당신이 이 곡을 지은 사람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음악을 공부하였나요?” “아니오, 음악을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대학을 다녔나요?” “아니 저는 대학을 다닌 적이 없고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자매를 통해 찬양곡 600곡이 중국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샤오민 자매는 나에게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하며 가지고 온 공책을 보여주었다. 601번부터 732번까지 적혀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731번곡을 작사하다가 수정하던 가나안의 노래를 나에게 주었다. 2017년 7월까지 1,870곡의 가나안의 노래가 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시는지 오늘도 나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1:17). 선교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dr.yongcho@gmail.com

선교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일하심 볼 수 있어 많은 기도와 노력이 선교지에 이미 있었다는 것 기억해야

판단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허난교회를 이끌어가는 열 명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고, 모두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누가 이들의 학력이 교회를 세웠다고 할 것인가. 우리들의 신학공부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가나안의 노래 작곡자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 선교사의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선교지

다. 나는 금금하여 물었다.

“아니 이렇게 6백곡이나 수록된 찬송가에 작곡, 작사가의 이름을 넣지 않아요. 번역을 하였으면 원작자들의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아니오, 이것은 번역을 한 찬송가가 아니라 중국 찬양입니다.” “그럼 중국 사람의 작곡, 작사가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아, 이것은 한 사람이 작곡하고 작사한 것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중국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는 600곡을 수록한 가나안의 노래 찬양 곡은 한사람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력가)

원 스토리 18강 / 십계명, 법(출19-24장) (1)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십계명,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의 풍요의 땅 애굽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나와서 스테반이 말한 ‘광야교회’(행7:38),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 하셨습니다(출13:17,18).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가르치실 ‘율례와 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는 관심 없이 그저 ‘우리의 원함’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애굽 풍습대로 살던 ‘애굽 시민권자들’입니다. 조상들이 구적으로 전해주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그려내는 애굽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알던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한 신, 자신들을 도와

주기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알았는데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언약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원함대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

상을 가진 신부처럼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는 장소인 시내 산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출19:12,21,23,24).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 자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는 관심 없이 그저 ‘우리의 원함’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며 ‘일용할 양식’으로 (출16:4/마6:11) 매일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신8:3/시1:2/마4:4). 광야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 중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오직 ‘원망’과 ‘불평’, ‘불신앙’으로 죽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신8:3/마4:4). 왜냐하면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닌 ‘거처가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때를 주셨지만(출16:13-21) 그것은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불평으로 구한 양식이었습니다. 불평으로 구한 것들은 받는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민11장). 또한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은 반석에서 나왔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전10:4)의 예표이며 이 생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요7:38). 이제 애굽 땅을 떠난지 3개월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출19:1,2).

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4-6)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으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출19:8)라고 응답합니다. 아직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신혼살림을 준비하는 신부, 결혼의 환

리에 가까이 온 백성들이 그들이 보거나 듣거나 한 어떤 것으로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은 ‘우상화’ 하는데 ‘본능적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출3:13)라고 했을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3:14)고 하셨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 오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먹고 마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그의 발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출24:10)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모세의 시체도 감추시고(신34:6) 하나님의 법궤도 감추시고 십계명 돌판도 감추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볼 줄을 못하고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섬김으로 울무가 되었고(사8:27)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뱀’으로 징계하시고 ‘놋뱀’으로 구원하시니(민21:4-9) 그들은 심지어 그 놋뱀을 약 700년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섬겼습니다(왕하18:4). 그래서 하나님은 산의 경계로 침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계명이 바

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20:12)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출20:13)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출20:14)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출20:15)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20:16)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20:17)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수많은 신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사람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에 다 넣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마22:34-40).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출20:18-21/신5:22-27)라고 합니다. 아직 이들의 고백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때 만큼은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향상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신5:28,29)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지금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 것인지를 아시며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변함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내가 친히 가리라(출33:12-14)찬19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회개(장신구를 떼어내라)를 촉구하십니다(출33:1-6).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대화하셨습니다(출33:7-11). 모세가 하나님께 '동역자'를 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라고 말씀하

십니다(출33:12-16).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출33:3)'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요3:16).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화 두 번째 돌판(출34:1-9)찬285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던 돌판은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을 향해 던져서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돌 판 두 개를 깎아서 만들어 그것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사십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 꼭대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출

34:28).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출34:1-4). '땅의 것' 위에 '하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땅에서 준비된 두 돌판'은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렘31:33).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수 보냄을 받되 섞이지는 맏시(출34:10-17)찬40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시며)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해주시길 것입니다(출34:10-1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출34:12-17). 즉,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는 멋있어 보이고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선악과처럼.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이적을 행해주시길 것입니다. 보냄 받은 곳에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목 성막을 제작하다(출36:1-7)찬449장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 자세는 '자비함'입니다(출35:3).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제작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성물제작을 위해 브살렐과 오홀리암을 세웁니다(출35:30-35). 본격적으로 성막제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공간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은 '임마누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입니다(고전3:16).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함으로 심령에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짓는 것'이 아니라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금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출39:32-43)찬455장

출37-39장은 브살렐과 오홀리암이 제작한 성물(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 제사장들의 옷, 흉패)에 관해 말씀합니다. 모든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의 향기(계 8:3-4)는 중보기도와 관계있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죄로 물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막울타리의

문, 즉 휘장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막15:38, 히10:20)를 상징합니다. 신앙생활의 정확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데는 정확한 치수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꼭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갑시다.

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출40:34-38)찬204장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출애굽한 다음해 1월1일)에 모든 성물과 성막제작이 완료된 후 성막봉헌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물을 배치하고 기름을 발라 기록하게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 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출40:34-35).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할 것입니다(출40:38).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때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좇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라 기록하게 합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는 날에는 절대 행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가라'하실 때 가고 '멈추라'하실 때 멈추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독교 교육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각오와 바람

지난해 "날 때부터 말긴바 되었고"(이하 "날말")라는 줄자를 히즈광기(His Finger, 본지 자매 기독교판사)를 통해 발간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날말"의 부제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민자의 자녀양육"입니다. 1984년에 유학을 시작하고 31년 전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이민자의 삶을 살며 아들과 딸을 낳아 길렀습니다. 이제 30살 된 아들은 7년간의 교사생활을 정리하고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7살 된 딸은 풀타임 직장생활과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학업을 병행하며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37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많았습니다. "날말"은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61가지를 모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기를 났습니다. 십여 년 전 백수를 눈앞에 둔 방지일 목사님이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인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런 분도 계셨는데 내가 게으름을 피워오 되는 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쇄된 책을 받아 손에 들었을 때 벅찬 감격과 함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인 책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새롭게 생각나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을 신지 못 한데서 오는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더 소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이 지면에 실릴 글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의 다양한 동기들 중 자녀양육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보고자 이민 길에 오릅니다. 자녀들에게 경쟁, 입시지옥, 청년실업, 환경오염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자신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을 떠납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배우게 하고,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바로 그때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칼럼을 제안해주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기대감과 염려를 동시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민자의 자녀양육에 관한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기회라는 면에서 감사했습니다. 잊어버렸던 내용, 빠뜨렸던 내용, 생각이 바뀐 내용을 글로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마감일에 맞추어 격주로 글을 낸다는 게 부담스러웠고,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씩 여유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드는 터라 칼럼을 맡겠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녀와 대화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의 다양한 동기들 중 자녀양육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보고자 이민 길에 오릅니다. 자녀들에게 경쟁, 입시지옥, 청년실업, 환경오염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자신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을 떠납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배우게 하고,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올해 드디어 그래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고 용

필자 김종환 목사는 1984년 말 유학길에 올라 1992년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1994년 미국으로 돌아와 Dallas Baptist University(달라스침례대학교, DBU)에서 5년 그리고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원에서 10년간 사역했다. 2010년 DBU로 복귀하여 신학대학(College of Christian Faith) 부학장과 기독교교육학 교수로 섬겨왔다. 1898년에 설립된 DBU는 종합대학교로서 텍사스주 달라스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84개의 학부전공과 34개의 석사과정 그리고 2개의 박사과정이 있다. 약 5,000명의 재학생 중 30여 명의 한인학생들이 있다. 또한 김 목사는 1999년부터 달라스 능송교회의 협동목사로 사역해오며, 2015년 비영리단체 '주라인터내셔널'을 설립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세사미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 회: 오전 5: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02: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 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찬양: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새벽별장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 오전 5:45 전인생애: 매주 토요일 오전 9:30	뉴욕양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목회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일: 구역모임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3,5)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 예배: 오전 12:3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석 경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 오전 5:45 전인생애: 매주 토요일 오전 9: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15 주일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3:4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진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어린양개혁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준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강성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부) 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8: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새벽 6시, 새벽 7시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새벽(금)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포야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3:0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월 14일 주일기도회: 아침 7:40 유.초.고.동.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 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현지인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3:00 주일 3부 예배: 오후 5:00

“Pray for Ukraine-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한국선교KMQ,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정보 책 발행

한국선교KMQ가 긴급한 요청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정보 책, "Pray for Ukraine-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을 발행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선교KMQ는 전자책과 종이책 2종류로 구분해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자책 신청은 SNS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구독을 원하면 kmqdesk@gmail.com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종이책은 3월 25일 출고되며 1)수신자 2)주소 3)연락처 4)권수 등을 기재해서 kmqdesk@gmail.com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발송한다(한국내). 교회의 경우 10부 이상 100부 이하, 개인의 경우 1부 이상이다. 연락처는 070-5222-3012.

고난 받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김평일 선교사(우크라이나 한인선교회 전정위원회 위원장)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지난 3주 동안에 걸쳐 반인륜적이고 국제법에서 금지한 전범행위 및 잔악 행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발사한 600여 개 이상의 미사일 폭탄은 우크라이나 국토를 초토화했다. 민간인을 향한 살상행위는 3000여 명을 넘어섰고 아동살해도 12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수많은 어린이가 부모와 헤어져 피란길에 오르고 있으며, 현재 국경을 넘는 피란민들만 300만 명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러시아의 공세가 지속될 경우, 전쟁 난민이 최대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러시아 군인들의 사망자는 부지기수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평범한 시민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은 끝없이 드넓은 평원과 드높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온순한 양털처럼 살아온 사람들이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에 갇힌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또한, 그들은 복음 및 개신교에 대하여 가장 열려 있는 민족이기도 하다. 이 땅은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수많은 사역자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힘차게 전진하는 중이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압박당하고 추방당한 선교사들에게 따뜻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고, 40여 명의 추방당한 선교사들의 새로운 사역지가 되어주었다.

이들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1994년 세계 3대 핵 강대국의 위상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선언하였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 각서에 서명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다. 그런 러시아로부터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 및 돈바스 지역을 유린당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

고자 불가피하게 나토 동맹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구실삼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토를 피로 물들이고 있다. 그들은 민간인 거주 지역 및 병원, 유치원, 그리고 기본 인프라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핵무기 운운하며 서방의 자유 민주 진영과 인류의 안전을 겁박하는 중이다. 세계는 지금 구소련 공산주의의 잔재를 포기하지 않은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의 세력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인 전쟁을 넘어서서 악마적인 어두움의 세력과 평화와 민주주의



의 가치를 토대로 한 빛의 세력 간의 가치 전쟁으로 변화 승화되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죽음의 계곡에서 결사 항전하며 호소 중이다. 우리 역시 그곳의 기독교인들을 도우며 연대해 어두움의 세력을 함께 대적해야 할 때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인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기도와 사랑의 견고한 끈으로 함께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을 신앙적, 경제적으로 본받아야 할 모델 국가로 여긴다. 고난과 통곡이 가득한 바로 이때, 우리 한국 교회 및 성도들이 고난 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함께한다면, 그들은 평생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좋은 친구로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유럽과 구공산권 복음화, 그리고 중동권 복음화로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인류를 모독하며 인류의 양심과 정의를 시험하는 이 악한 전쟁행위가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가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0.가정의 질서회복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가정선교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야기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성 상위와 부권(아버지의 권위)상실로 인한 가정의 질서가 거꾸로 전도(顛倒)되었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전 11:3)입니다. 즉 하나님>그리스도>남자>여자라는 종속적인 지도권(Headship)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여성상위시대 가운데 남자의 머리에 여자가 앉아있다는 전도된 가정의 질서가 큰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 중 가장 최소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부부, 곧 남녀에 대한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인데 그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고 뒤바뀌게 됩

생기는 것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월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만 잘하면 가정의 문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1. 남편(아버지)의 위치와 역할

한 아내의 남편과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즉 가장(家長, Headship)으로서 가정의 대표자, 가정의 제사장, 예배의 인도자, 가정의 양육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희생적,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엡5:25).

하듯 해야 하며(엡5:22), 남편을 경외하며 존경해야 합니다(엡5:33).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7가지 성경적 근거’는 (1)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며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고전11:3). (2)여자는 인류 최초의 범법자이므로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딤후2:14,창3:16). (3)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창2:21-22,고전11:7). (4)하나님의 말씀이 휘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딤후2:5). (5)주 안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골3:18). (6)남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벧전3:1). (7)따뜻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벧전3:6).

3. 부모와 자식의 위치와 역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만사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엡6:1-3).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엡6:4)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인 남편에게 있지만 종속적이고 직접적인 가정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인 아내에게 있고 교육의 목적은 신앙의 계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만일 각자의 위치를 벗어나면

각자 위치에서 맡은 역할 잘 감당하면 가정의 질서회복

으로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잠잠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고전14:33), 질서의 하나님(고전14:40)이심을 전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키려면 먼저 가정의 구성요소인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자식 간의 위치와 역할이 제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모 교회의 임직사에서 어떤 목사님이 임직자와 교인들에게, ‘목목, 장장, 권권, 집집’이란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자기 일만 잘하면 교회는 아무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6가지 성경적 근거’는 (1)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엡5:27), (2)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엡5:25), (3)아내를 사랑함이 곧 자기를 사랑함이기 때문입니다(엡5:28,33), (4)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벧전3:7), (5)아내는 영생의 유업을 함께할 자이기 때문입니다(벧전3:7), (6)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정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벧전3:7).

2. 아내(어머니)의 위치와 역할

한 남편을 돕는 배필(Helper)과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관리자, 자녀에 대한 교육자, 가정의 영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달영이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월권하면 가정질서의 파괴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도전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함으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협력할 때에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에비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릭터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한솔보험 창립 45주년 기념

차세대 청년리더 장학기금



한솔 골프대회

특별후원 : 서울메디칼그룹 (SMG) / 세계 한인 교민청 (WKF)

Date : Apr.11 (Mon) 2022

Place : Los Coyotes Golf Course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Head Count : 11AM Shotgun : 1 PM

접수마감 : 2022년 3월 31일 오후 5시

참가비 : \$140 00. (골프 fee + 저녁만찬)

문의처 : 안신기 (909.677.0028), 윤강혁 (714.276.7609)

GOLD SPONSOR	\$10,000.00	5명 Free play	T Sign	Full Page 표지 광고
SILVER SPONSOR	\$5,000.00	3명 Free play	T Sign	Full Page 광고
BRONZE SPONSOR	\$2,500.00	2명 Free play	T Sign	2/1 Page 광고
TEE SPONSOR	\$500	1명 Free play	T Sign	
	\$300		T Sign	

Payable to : Kcbmc USA, #83-4155731

행사 수익금은 전액 차세대 기독 청년 장학기금으로 사용합니다.

대회고문 : 권오철, 김경제, 김광남, 김성웅, 모종태, 신승수, 염창섭, 오익환, 오제조, 윤창기, 이학태, 임태량, 한기형, 이용규, 최춘호

대회장 : 황선철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총회장)

공동대회장 : 강승태, 차민영,

명예대회장 : 그레이스 김 (PTM), 박영선 (Buena Park, 시장), 유수연 (ABC 교육교육위원장)

집행위원장 : 이원표 / 부위원장 : 윤강혁

총괄준비위원장 : 안신기, 민김

공동준비위원장 : 이봉우, 오현근, 최상태

경기위원장 : 최재석

미주 한인 CBMC 장학금 모집 공고

- 2022년도 대학, 대학원 재학 및 진학하고자 하는 20대~30대 초반 의 학생 및 직장인, 소상공인
 - 미서부지역 거주자(가주/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아리조나/ 뽕쿠버/하와이)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및 신앙간증서 1부, 지난 학기 성적 증명서 1부, 학업 중 기독 정신에 관련한 활동 내역서 1부, 추천서 1부
 - 제출기간 : 3/28~4/30/2022
 - 서류제출 : revshinki@gmail.com
- 선발 인원 및 장학 금액
- 선발 : 미주 한인 CBMC 장학위원회(위원장 안신기목사)
 - 인원 및 장학 금액 : 20명 내외로 일인당 \$2,000
 - 문의전화 : 909-677-0028 (미주 한인 CBMC 장학위원회)

(경품)

한국왕복항공권 (제공)

출인원
4개홀 각각 2만불

주관 :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CBMC)

지회 : 남가주 LA K타운, 부에나파크, 가든그로브, 하와이, 덴버, 남가주연합회, 북가주연합회, 서북부연합회

후원 : 미주 한인보험인 협회, OC한인회, OC한미노인회, OC/SD민주평통, OC장로협의회, 남가주ROTC, LA/OC한인상공회의소, OC체육회, KACC,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시민권자협회, 재향군인회 서부지회

미디어 스폰서 : 중앙일보, 한국일보, 일요뉴스, 코리아 라디오, 타운뉴스, CBS 미주기독교방송, US 메트로뉴스, K WAVE(주), 스포츠 서울

협찬 : 마동환 변호사 그룹, 한미보험 (주), UNI Good Friend보험, NGL Transportation, JAR Ins.Inc. SCAN GSA항공산업 (주), SEEUN Corp.(세은) 연세대 남가주동문회, 용산고 남가주동문회, 목요골프회, 갈보리 선교골프회